

탈탈한 언니들

2030

WLB 연구소

Work Life Balance 일생활균형

탈탈한 언니들, 그 시작을 알리면서

어린 시절 저는 시인이 되고 싶었고, 소설가가 되고 싶었고, 아티스트이고 싶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다 말고는 국제 수의사가 되어 아프리카 오지의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고 수의사가 되는데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젠장) 그럼 동물원에 취직해서 고양이과 맹수들한테 밥주는 사람으로 꿈이 변경되기도 했지요. ‘가요톱텐’을 보다말고 가수가 되고 싶었으며 어느 날은 다 때려치고 문득 산에 들어가서 작품 활동을하는 간지나는 묵수나 도예가가 되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게 돌아오는 ‘말’들은 저를 웅아매더군요. 여자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사는 게 최고라며 연금이 따박 따박 나오는 공무원이 되거나 방학이 보장되어 있고 저녁 시간이 보장되는 초등학교 선생님(물론 실제로 보장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이 되는 걸 최고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이 주변에 늘어났죠.

다행히 기질 자체가 청개구리 기질이라 그런지 어른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가는 루트에서는 영영 벗어나버린 10대, 20대를 살았습니다. 사실 그러려면 취직 안되는 국문학과를 진학하면 안됐고(눈물), 토익 토플 점수를 빨리 내야했고(눈물), 대학교 3학년 때 이미 취업 동아리에 들어갔었어야 했는데(눈물) 다행인지 불행인지 뭘 잘 몰랐기 때문에 음악한다고 깎쳐도 보고, 시를 쓰느라 수업에 빠져도 보고, 가장 인기없어서 우후죽순으로 폐과 수순을 밟던 당시의 ‘여성학과’로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했었지요.

참 하고 싶은걸 다 하고 살았음에도 사실은 이제와 고백하건데 그 순간 순간이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불안했었습니다. 이래도 괜찮을까, 남들은 다 이렇게 하던데 나는 왜 이따위로 살고 있을까. 어떤 순간은 너무나 불안해져서 소주가 없이는 잠들기 힘든 밤도 있었고, 생각의 생각이 꼬리를 물어 뜯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한영애의 ‘누구 없소’를 무한 반복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어설픈 재능’들은 독이 되어 자격지심을 낳기도 했지요. 신춘문에 당선은 꿈같은 이야기였고, 지역에서 밴드하다가 서울을 올라오니 잘하는 친구들 투성이었죠. 나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은 이미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거나 열심히 준비중이었는데 나는 이것도 기웃, 저것도 기웃하느라 아무것도 손에 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건 그 모든 삶의 과정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보냈지만 남들처럼 대기업에 가겠단다고 선언하며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지만 별 다를 것 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본가로 내려와 ‘시집’이나 가라며 ‘아빠 친구 아들’이 등판하는 지경에 이릅니다(아직도 기억합니다. 주유소한다는 기름집 아드님. 지금 어디선가 잘 살고 계시지요?).

그렇게 내가 그동안 어렵게 하나하나 쌓아나갔던 모든 것들은 그저 시시한 것이 되어 버렸고, 치기어린 꿈에 불과했으며, 실패한 과거의 경험으로 분류되더라구요. 내가 했던 그 수많은 무대도, 밤새 써내려갔던 시들도, 뜨거웠던 밤들도 모두.

이상하죠. 가까이 제 남동생만 하더라도 뭐든지 해봐라, 어떤 경험이든지 앞으로 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사내는 실패할 수 있다, 그걸 바탕으로 다시 올라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많은 매체에서는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성공한 남성 사업가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업은 몇 번이고 망할 수 있지, 인생 한방이야를 외치는 청년 남성 사업가의 인터뷰는 여전히 각종 청년 잡지의 메인 페이지를 차지합니다. 근데 왜 저한테는 ‘그러지 말고 시집가라’고 이야기하죠? 사업 망할 수도 있지라고 하기 전에 애초에 저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는 할까요? 제가 뭘해야 성공했다고 이야기해주실 건가요? 의사한테 시집가면? 땀두꺼비같은 아들을 낳으면? 대체 뭘하면 나는 성공한거죠?

아직도 무엇이 성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저는 약간 뼈뺀 선을 타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건 제 삶이 실패한 삶인지, 성공한 삶인지와 관계없이 지금 저는 아직은 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이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노래를 하지는 않지만 강의 무대에 서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고, 신춘문에 등판은 못하지만 파트너를 위해 가끔 시를 쓰기도 합니다. 여전히 도수높은 술을 마시고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다음날 반성하며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도 가지고 있지요. 아픈 고양이 병원비를 댈 정도는 벌면서 버티고 있으며 쌀이 떨어지면 쌀을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향집에서 보내준 김치를 삼삼오오 나눠먹으면서, 각자의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이 ‘가소로운’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감히 다시 말하고 싶었습니다. 생의 과정에서 다른 비전을 상상하지 못하고 ‘출산하는 몸’으로만 환원되어 ‘고만하고 시집가라’는 메시지를 받아온 2030 여성들에게 생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탈(脫)주’를 시도한 또래 경험자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과거의 경험들이 모두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으며,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열레리 꼴레리 실패했다고 놀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성공담이 아닌, 실패의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이제껏 ‘성공 신화적’ 자기계발서 식의 서사에 노출되어 이번에 취직 하지 않으면, 이번에 결혼하지 않으면, 이번에 애를 낳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거야 같은 말도 안되는 두려움(개나 주라지)을 안고 살았던 여성들이 ‘까짓까 한번 실패해도 괜찮네’ 또는 ‘이게 무슨 실패야’라고 말하며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김치 한 쪽 같이 나눠먹으며 허허실실 웃으며 다음번에 올 삶의 과정들을 더욱 충실히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실패가 ‘위기’로 연결되는 사회가 아니라 사실은 그저 그런 삶 속의 한 과정이며, 그 일로 인해서 삶이 그렇게까지 엉망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때까지 우리의 실패담을 계속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첫 발을 지금 4인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강의의 뜨거움은 글로서 다 전달할 수 없겠지만 차분히 내려써간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의 실패담이 새롭게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히 바라건데 매 시간 최선을 다해 이야기를 나누어주신 선생님들의 삶에서도 이 일련의 과정이 또 다른 하나의 갈무리가 되는 과정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9년 탈탈한 언니들을 응원하며,
일생활균형연구소

*<탈탈한 언니들>은 2019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기금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탈탈한 언니들>은 2019년 6월 12일~7월 10일 매 회 3시간 단위 소규모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본 자료집은 각 회차의 주인공들이 강의한 내용을 ‘글’로 재정리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실패가 보여준 다른 세상

달리(문화기획달)

2019. 6. 12. <“조금 달라도 괜찮아” - 타로로 그리는 내 삶의 지도> 강의 진행



실패한 탄생

존재 자체가 실패였다. 아들바라기인 친할머니가 휘어잡는 집안에서 장‘녀’인 나의 탄생은 엄마와 내가 (집안)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실패했다는 의미였다. 내가 아들이었다면 엄마의 신분상승이 이뤄졌을까. 이미 집안의 종노릇을 해온 엄마는 나를 낳고 며칠 뒤부터 시조카들의 도시락을 싸고 김장을 했다고 한다. 인생의 출발에서부터 그렇게 꼬인 내 아래로 다시 여동생이 태어났다. 엄마가 동생을 출산할 때 병원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엄마는 아빠에게 그 일을 두고두고 원망하곤 했다.

내가 일곱 살 무렵 엄마가 셋째를 임신했다. 할머니는 이번엔 진짜 아들일 거라고 엄청 들떠 있었다. 그런데 엄마는 만삭에 유산을 했고 심하게 아팠다. 그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더니 신었던 신발 한 짝을 손에 들고 땅에 내리치며 꺼이꺼이 서러운 통곡을 했다.

“아이고, 이번엔 아들이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그 당시에 엄마가 성감별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온집안은 당연히 아들이 태어날 거라 믿고 있었고, 나는 엄마의 배가 불러올수록 점점 초조해졌다. 할머니가 우는 것을 보며 나는 다섯 살짜리 여동생의 귀에 속삭였다.

“재가 안 태어나서 진짜 다행이야. 재 나왔으면 우리 둘 다 쫓겨났을지도 몰라.”

그 어린아이가 생애 초기 내내 느꼈을 존재의 불안과 자기부정의 고통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리곤 한다.

할머니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엄마의 셋째 유산 이후로도 내가 열 살이 넘을 때까지 부모님에게 아들을 입양하라고 강요했다. 그 일로 아빠는 할머니와 자주 싸웠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집안에 여자가 잘 못 들어와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또 엄마를 들들 볶았다. 그런 엄마를 보며 슬퍼하고 의기소침해진 나에게 엄마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곤 했다.

“엄만 괜찮아. 우리집은 네가 아들 노릇 하면 되.”

지금 생각하면 아이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답하곤 했다. 어차피 불가능한 일인 줄 알지 못하고 감히 꿈꾸었던 ‘아들되기’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인정투쟁의 실패

몇 년 전까지도 가끔 감정이 우울하거나 마음이 가라앉을 때 캄캄한 방에 불이 켜지듯 순간적으로 확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빨래터에 있는 나와 할머니의 모습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는 또래 아이들보다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는 편이었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편이었는데 시험에서 백점을 맞거나 학교에서 상장을 받으면 집으로 달려와 항상 할머니에게 먼저 가져가곤 했다. 그날도, 백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빨래하던 할머니에게 다가가 보여드렸는데 할머니는 옷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기집애가 공부 잘해봤자 하냥 쓸 데 없다.”

그러자 곁에 있던 옆집 할머니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며 나를 달래고 잘했다며 칭찬해주었는데,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이미 울음보가 터진 상태였다. 그럴 때마다 엄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겨 서럽게 울곤 했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 엄마는 그저 같이 가슴 아파할 뿐이었다.

일등을 하고 반장이 되어도 알아주지 않고 할머니 옆에서 같이 자고 싶다고 베개를 안고 찾아가도 손자들만 싸고 돌며 쫓아내니 나도 더 이상 할머니에게 사랑받거나 인정받으려 노력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다른 어른들이 집안행사에 아들을 먼저 세우려 할 때 그에 끼거나 휘방을 놓기 시작했다. 명절에 차례를 지내거나 집안에 제사가 있으면 여자들은 병풍처럼 뒤에서 있고 남자들만 절을 했는데, 나는 사촌오빠들 사이에 꼭 끼어서 같이 절을 했다. 아빠가 여자는 절하는 거 아니라며 나오라고 하면

“아빠엄마 죽으면 오빠들이 제사 지내? 내가 지내잖아. 나도 상주인데 왜 여기서 절하면 안돼?”

라며 버티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은 기가 막혀 웃고 어린아이의 치기라 여기며 그냥 봐주었다.

또 제사 준비를 할 때 여자어른들이 사촌오빠들은 다 오락실에 보내면서 열 살도 안 된 나와 여동생에게 심부름을 하며 집안일을 도우라고 하면 ‘살림 보이콧’ 선언을 했다. 그러자 고분고분하지 않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여자어른들은 이런 일을 해야 시집가서 사랑받는다고 잔소리를 했다.

“이런 일을 해야 사랑받는 거면 저는 시집 안 갈래요.”

어린 여자아이가 되바라지게 말하자 어른들은 웃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는데, 그런 일의 영향인지 6학년 때엔 장래희망에 ‘독신주의자’라고 써 친구들이 뜻을 물어보기도 했다. 결국 ‘아들되기’ 프로젝트는 딸의 몸으로 불가능한 미션이었고, 인정에 실패를 거듭하던 나는 대신 ‘딸 안되기’를 선택한 것이다. 딸과 아들 어디에도 속할 수 없고 무엇도 내가 아니라고 하는 세상과 나는 불화할 수밖에 없었다.

제도교육과 입시의 실패

폭풍같은 청소년기를 보내며 나는 지역에서 가장 입시교육을 ‘빡세’게 시키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당시에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저 어른들이 좋은 학교라고 하는 곳에 다니는 게 당연하다 여겼고 학교만 졸업하면 모든 자유를 만끽할 거라 막연히 믿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생활은 온통 회색빛 우울로 가득 차 있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책상에 앉아 책을 달달 외우고 시험을 치고 성적이 매겨지는 일상이 반복되자 나는 완전히 무기력해졌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거의 매일 책상에 엎드려 있기만 했다. 2학년이 되자 1학년 때 우리반 수업을 맡았던 국어 선생님이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친구들은 모두 ‘명문대’를 목표로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나의 불만과 불행은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니 매일 동등 떠다니는 느낌이었다. 거의 매일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며 불성실한 학교생활을 이어가자 선생님들은 나의 진학지도를 포기해버렸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에 숨이 막혔지만 그때는 대안교육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도 배운 적이 없어, 그저 버티는 것만이 최선인 줄 알았다.

그러다 3학년이 되고 본격적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할 때가 되자 불안이 가중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내내 대학을 포기한 상태로 지냈는데 졸업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중 문득 철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윤리선생님에게 진로상담을 요청하고 철학과 진학에 대해 의논했는데, 선생님은 대뜸 화를 냈다.

“너 정신이 나갔어? 철학과를 나와서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생각이 있는거야 없는 거야?”

얕은 수준이었지만 동서양 철학에 대해 수업했던 선생님이 그렇게 나오자 나는 몹시 당황스러웠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내용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먹고 살지는 공부하고 나서 정하면 되잖아요. 선생님은 그럼 왜 철학을 가르치신 거예요?”

“나도 먹고 살려고 하는 수 없이 한 거지! 누군 선생이 하고 싶어서 하는줄 알아? 철이 없어, 애가.”

고민을 거듭하고 찾아간 선생님이 그렇게 반응하자 나는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다. 무엇을 전공할지는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니 선생님은 나에게 포기선언을 했다. 그리고 졸업할 즈음 확인하니 선생님은 내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어두었다.

“사회부적응자. 가정과 학교의 관심이 요함.”

철학을 전공하겠다고 하니 집안도 발칵 뒤집혔고, 모두가 나를 뜯어 말렸지만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하지만 원하던 대학의 입시에 실패했고 결국 재수생활까지 하게 되었다. 학교에도 입시에도 부모님의 기대에도 실패한 것이다.

실패로 얻은 다른 눈

이렇게 태어난 순간부터 무려 성인이 될 때까지 거듭된 실패가 나에게 남겨준 것은 무엇일까. 당시엔 나도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겼다. 그래서 실패자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온갖 애를 쓰며 살아온 것 같다. 온전한 존재, 정상적 욕망이 아니라는 취급을 받는 동안 ‘바깥’의 공기와 온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바깥’은 좁고 외롭고 서러웠다. 부당하고 억울했으며 그를 표현할 언어도 갖지 못했다. 아마 페미니즘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런 삶의 경험이 누적된 결과였을 것이다.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보면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잘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답의 ‘바깥’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니 삶의 모양과 선택지는 더 다양해졌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르’다는 게 실패가 아님을 깨달을 수도 있었다. 실패는 내 삶의 성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을 소외시키고 외면하며 살아갈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여성운동을 만난 건 그런 실패의 당연한 과정이자 결과일지 모른다. 페미니즘을 만난 덕분에 내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었고, 내가 원하는 것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용기를 얻었다. 활동의 과정 또한 녹록치 않았지만 계속 깨지고 부서지기를 반복하며 나는 더 넓은 세계와 접촉했고 오래 함께할 동지들이 생겼다. ‘안’에서는 경쟁일색이었는데, ‘바깥’에서는 연대해야 살아갈 수 있었다. 공부와 활동을 통해 얻는 힘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데 물을 주는 것과 같다.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야 나는 스스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배움은 늦게 찾아오기도 하고 때가 없이 죽을때까지 이어진다는 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건강과 삶의 전환점

20대에 대학과 도시생활 속에서 가열차게 여성운동을 했던 나는, 20대 중반 이후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에 위기가 찾아왔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해야 했다. 여성운동을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달려왔던 시간을 멈추고 온전히 몸과 마음을 돌보며 생활하기 시작하니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답답함과 외로움을 누구와 나눌 수 없는 것이어서 오롯이 혼자 답을 찾아가야 했다. 그 와중에, 가족이 해체되는 일이 생겼다. 부모님의 이별 과정을 바라보며 나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가족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서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를 충분히 살피기 위한 시간을 주기로 했다. 결국 쓸쓸한 발걸음으로 서울을 정리하고 도시생활을 청산했다.

남들은 커리어를 쌓고 자리를 잡기 위해 분투할 시기에 가족도 일도 집도 다 잃은 채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살아가려니 막막하고 두렵기만 했다. 왜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이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다. 고요한 숲 속을 매일 걸으며 산란한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부유하는 삶 속에서 안정감을 얻기란 힘들었다. 천천히 몸이 회복되고 도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면서 농촌에서의 삶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진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어서 내릴 수 있던 결정이었다.

맨땅에 헤딩하기

삼십 평생 농촌에서 살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 다 쓰러져 가는 농가에서의 공동체 생활은 거의 극기훈련과 같은 것이었다. 나와 파트너는 친구들이 운영하는 청년귀농공동체에 참가자로 들어가 같이 생활하기로 했고, 낡은 시골집에서 한 방에 여럿이 자며 몇 개월을 보냈다. 처음엔 아무 것도 모르니까, 그저 주어진 것에 충실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았다.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불편하니 불평은 공동체생활을 저해하는 것 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쾌적한 아파트나 작더라도 나만의 공간이 있던 자취생활만 하다 모르는 타인들과 24시간 함께 지내려니 편안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농촌의 문화나 농사일에 관해서 아무 관심도 지식도 없다가 무작정 뛰어들어 터라, 모든 게 낯설고 시도할 때마다 부딪치기만 하는 느낌이었다. 다시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나, 농사일을 제대로 배워야 하나 갈등하던 즈음 비슷한 고민을 하던 친구들은 공동체를 접고 뿔뿔이 흩어졌다. 나와 파트너는 돌아갈 곳도 없었기에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 계속 머무르기로 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의 전원생활은 돈과 여유가 많은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것이었다. 집과 땅을 구하는 것, 작물을 하나하나 심는 것부터 우리에게는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운 좋게도 주변에 따뜻한 이웃 분들이 많아 거의 돌봐주듯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이주민이라곤 우리 둘뿐이고 버스가 하루에 네 번 들어오는 오지 같은 시골마을은 너무나 적막했다. 그래서인지 가끔 고등학교 때의 내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다. 학교에 적응 못했던 것처럼 시골에도 적응을 못하다니,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쓴 것 처럼 나는 ‘사회부적응자’ 맞는 거 아닐까? 어쩌면 이렇게 가는 곳마다 불편하지? 어디에서 삶의 재미를 길어 올려야 하지? 농사일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고 재미가 없지?

적응실패 인정하기

시골이라는 공간과 문화에 나를 끼워 맞추려 용을 쓰다 시간이 꽤 오래 흐른 뒤에서야 몇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나는 공동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수적인 나에게 공동체를 지향하는 문화는 어울리지 않았다. 공동체라 하면 꼭 뭔가를 같이, 함께하는 일을 좋아하거나 공동체의 가치를 ‘선’하다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데 나는 그 둘 모두에 회의를 느꼈다. 나는 소수의 편한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싶고, 집단보다 개인의 가치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나는 농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시골에 살면 비록 ‘업’으로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먹을 것 정도는 지어먹고 살아야 ‘사람 노릇’하는 거라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다. 나 또한 자급자족의 가치를 지향하고자 했고, 실제로 먹거리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해결한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농사일 자체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즐겁지 않았다. 몸노동에 익숙하지도 않거니와, 다른 종류의 활동이 나와 더 맞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오랫동안 ‘농사를 좋아하지 않는 나’ ‘농사일에 무능력한 나’를 비난하거나 책망하곤 했다. 농촌에 진입한 순간 스며든 ‘옳은 삶’의 기준을 스스로에게 과하게 적용한 것이다.

셋째, 나는 농촌문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도시에서도 밤마다 유흥산업이 성업 중이지만 농촌은 일할 때도 술을 먹고 각종 행사에서 술과 놀이판이 빠지질 않는다. 나는 술을 전혀 못 마시기도 하지만 매번 그렇게 어울리는게 힘들기만 할뿐 별로 즐겁지 않았다. 또 지역사회가 작다보니 관계망도 좁고, 다층적이어서 서로의 경계가 별로 없다. 이렇게 비밀이 없고 소문은 무성하니 남들 시선 자체가 신경쓰여 문득문득 숨이 막힐 때가 있다. 그래서 도시에 나가면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일부러 들르곤 한다. ‘군중 속의 고독’이나 ‘익명성’의 사치를 누리보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몸은 농촌에 있지만 욕구가 ‘다름’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다. 실패라 여겼던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한 실험의 과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마 와보지 않았다면, 해보지 않았다면 아예 알 수조차 없었을 것 이다.

바람 부는대로

농사일에 대한 고민이 무거운 안개처럼 깔려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나와 파트너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결심하고, 야심차게 큰 하우스 두 동을 빌려 공사를 했다. 그런데 겨울 내내 힘들게 번 돈으로 지어놓은 비닐하우스가 봄에 강풍을 맞아 하루 만에 모두 날아가 버렸다. 도시에서의 봄바람은 기분 좋은 미풍 같은 것이지만 농촌에서는 바람이 ‘재해’로 불어 닥칠 때가 있다. 비닐은 모두 찢기고 뼈대인 철대마저 뽕혀 덜렁거리는 하우스를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실패 정도가 아니라, 시작도 전에 ‘망’한 것이다. 주말에 서울에서 내려와 도와준 친구들 덕에 무너진 하우스 골조를 모두 정리하고, 우리는 농사일에 대한 마음도 깨끗이 접었다. 농사일을 주도했던 파트너가 그 일로 마음이 많이 다쳤을까봐 나는 노심초사했는데, 나중에 그는 고백하듯이 말했다.

“사실 그때 하우스가 날아가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 농사일로 먹고살 자신이 없어서 정말 막막했거든.”

우리는 농촌에서 농사 외 삶의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각자의 욕구를 꺾꺾 누르고 살며 시골의 질서와 정서에 어떻게든 맞춰 살아보려고 애썼던 것이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농사를 포기하게 되니 그때부터는 생계를 잇기위해 닥치는대로 돈 버는 일을 찾아 매달렸다. 그러자 어느 순간 그런 삶이 도시에서의 삶과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우면서도 풍요로운 삶을 도모할 수 있는 터전을 궁리하게 되었다. 마침 지리산, 남원 지역을 소개받았고 처음 농촌으로 이주했을 때처럼 가진 게 없던 우리는 가볍게 떠날 수 있었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도시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고, 조금이라도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다. 그렇게 바람처럼 날아들어 머문 지 어느새 9년째가 된다. 우리는 각자의 일과 활동을 찾아 자리잡았고, 나는 삶의 그 어느 순간보다 많은 활동을 벌이고 또 꿈꾸며 사는 중이다. 평생을 걸쳐온 실패의 역사는 나를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 같다. 실패는 나를 망가뜨리지 않았고 발을 더 가볍게 만들어주었다. 실패가 없었다면, 다른 세상도 볼 수 없었으리라.

나에게 실패란?

아들 아닌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은 이미 나에게 실패한 존재라 불렀다. 그를 부정하고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온몸으로 나만의 성공기를 쓰고자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연장으로 아버지의 집을 부술 수 없(벨 훅스)”듯이, 아버지의 세상이 규정하는 성공/실패의 기준에 맞추어 나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도, 완전한 성공을 이룰 수도 없었다. 페미니즘을 만나고 나는 스스로와 꾸준히 화해해왔다. 새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일구고 기둥을 세우고 나만의 집을 꿈꾸기 시작했다. 빈 땅에 혼자 힘으로 집을 짓는 동안에도 실패는 끊임없이 찾아왔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을 때 실패는 실수나 실험이 되어 나에게 새로운 방향을 다시 만들어주었다. 세상이 말하는 실패한 삶 속에 대안적인 삶, 다른 욕망이 숨어 있었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수용할 때마다 삶은 더 가까이 스며들었다. 이제는 실패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꺼안지 않는다면 이 우주에 나를 돌보고 사랑할 이 누구인가. 세상이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는 모든 여성들과 함께 계속 나아가고 싶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세상도 실패하지 않으리라

달리의 풍경



농사짓던 밭 / 농사지은 당근



마을노래자랑 출전(인기상 수상) / 마을풍물패 활동



지리산마을 풍경
지리산에서
처음 살았던 집



터키여행에서



지역독립잡지 <지글스>



지리산 이웃여성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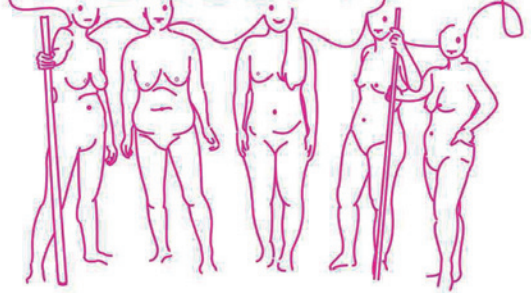


농촌페미니즘 캠페인



청소년 젠더교육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단체활동 작품 / 타로 프로그램

반짝이는 세계들과 반짝이지 않던 시간 내 피, 땀, 눈물

반짝반짝 곽은정

2019. 6. 19. <“반짝이는 세계들과 반짝이지 않던 시간” - 내 피, 땀, 눈물> 강의 진행



2019년 4월 27일 중국 윈난 열하이 호숫가에서

약속해, 용감해지기로.
용감해진다는 건 감정을 따른다는 거야.
몸의 근육처럼 우리의 영혼도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
- 익명의 친구로부터

똥인지 된장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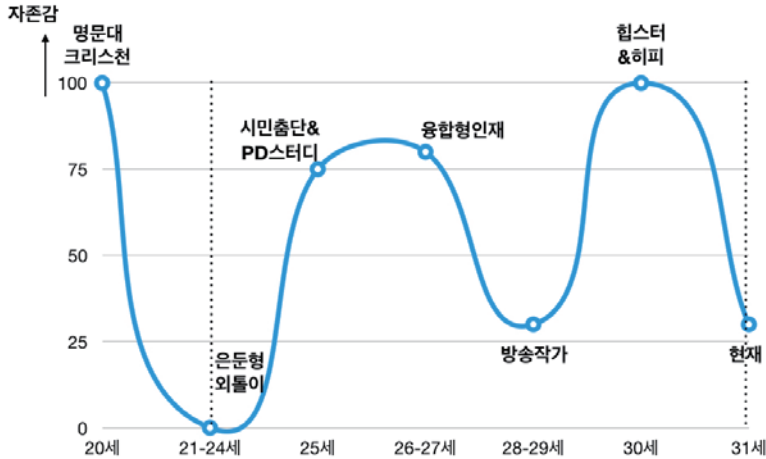
꿈을 좇는 것과 현재를 살아가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용감한 일일까? 평생을 몽상가로 살아온 나는 머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으로 가득 찼고 그 꿈의 여정을 시작하는 일로 언제나 가슴이 설렘. 무언가를 꾸준히 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지루한 일로 여겼고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대답은 현재를 살아가는 일이 훨씬 힘들고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변함없는 사람을 동경했고, 지루함을 감내하는 것을 어른의 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나는 크리스천, 모범생, 시민 춤단, 힙스터, 히피 등 삶의 여러 단계를 거쳐 오면서, 뱀띠여서인지 뱀의 속명처럼 익숙해진 세계의 허물을 벗어 던지는 일을 반복해온 듯하다. 그러나 31령^{*)}의 나는 처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는 것조차 마음이 쓰라리고 두려워졌다. 허물을 벗는 동물이 굴속에 들어가 야금야금 벗어놓은 허물을 먹으며 새로운 시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현재의 나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 감정을 따르다는 것이 용감해야만 할 수 있다는 친구의 말처럼, 나이를 먹을수록 감정을 따르고 내 영혼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점점 무게가 더해지는 것 같다.

이 글은 내가 동경하던 반짝이는 세계들과 그 세계에 뛰어들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실망하고, 배우고, 시작점을 찾아온 나의 이야기다. 이 글을 쓰고 읽다 보면 왜 내가 지금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 나이를 세는 단위로, 허물을 벗을 때마다 1령씩 나이를 먹는다. 본문에서는 31살을 31령으로 표현했다.

곽은정의 인생 곡선



나이를 먹으면서 겪은 내 인생의 단계들이다.

수직으로 나 있는 점선(21-24세, 31세 지점)은 가장 크게 좌절했던 시기 혹은 인생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명문대 크리스천: 21세까지

나의 사춘기는 21살에 찾아왔다. 사춘기라는 것이 자아가 뚜렷해지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렇다. 반항과 일탈은 남들처럼 10대에 하기는 했지만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기 위한 치열한 일은 아니었다. 21살부터 현재까지, 나는 20살까지의 나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엄마의 착한 딸, 교회 공동체의 똑똑새, 선생님들께 이쁨받는 모범생. 태생적으로 체제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나는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잘 들어맞는 성격이었다. 나는 고집 세고 유별난 아이였던 오빠의 뒤를 이어 6년 만에 태어났다. 오빠는 외가, 친구를 통틀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아기였다. 유모차에 타면 고갯짓으로 원하는 방향을 지시했고, 기분이 나쁘면 먹던 젖병을 던져서 깨뜨렸다. 이유식을 할 때부터 편식이 심해서 엄마는 그때부터 짭 요리에 자신감을 잃었다. 오빠는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했고 그건 항상 엄마, 아빠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였다.

반면 나는 엄마, 아빠와 항상 눈을 맞췄고 엄마 말에 의하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아기였다. 걸음마를 땔 때는 손뼉 치면서 ‘이리 와’ 하면 그대로 발을 뻗었다. 그 덕에 나는 8개월 만에 걸음마를 했다. 육아와 시집살이에 시달리던 엄마에게 나는 유일한 숨통이었다. 잔병치레가 많았던 어린 나를 데리고 응급실로 향하던 차 안에서는 나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 주었고, 엄마가 아플 때면 걸레에 물을 묻혀 엄마의 이마 위에 올려주며 간호를 했다고 한다.

모태신앙이었던 엄마가 종교 문제로 시댁에서 갈등을 겪고 있을 때도 유일하게 나만이 엄마의 교회 메이트가 되어 주었다. 엄마를 따라 산속의 기도원도 종종 따라갔고 교회에서 만나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등 모두의 관심과 애정에 부응했다. 단기 기억력이 좋았기 때문에 성경학교에서 하는 주기도문이나 성경 구절 암송에도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그래서 6살 때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뚝뚝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나는 극도로 내성적인 아이였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처음 만난 담임교사에게 혼이 난 이후로 학교라는 공간 혹은 선생님이라는 지위에 일종의 공포를 느꼈던 것 같다. 특히 초등학교 내내 선생님에게 화장실을 가겠다는 말을 못 했던 걸로 기억한다. 이 시기 나는 배변에 문제가 있었고 여전히 잔병치레도 많아서 상당히 우울한 유년기를 보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서 사랑을 받는 것이 어린이 관음정에게는 정서적으로 중요한 시간이었다. 학업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의외로 대외적인 명성에는 큰 타격이 있지 않았는지 4학년부서는 학급 임원을 줄곧 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모범생의 길을 걸은 것은 중학교 입학부터이다. 이때부터 성적도 중상 정도로 진입했고, ‘절대로 나대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예뻐했다. 2학년 때부터는 ‘문제아’라고 규정된 아이들과도 어울려서 일요일에 같이 학교에서 술을 마시는 일도 있었는데, 나만 유일하게 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 일을 일러바친 친구가 내 이름도 다 얘기했다고 나에게 으름장을 놓았지만 어쩐지 나는 소환되지 않고 다른 친구들만 징계를 받았다. 그만큼 당시 선생님들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게 아니었나싶다. 그 이후로 나는 더욱 조신하고 안전하게 음주를 했다. 그러다 3학년 때 만취로 귀가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자기 탓이라고 나를 감싸주는 바람에 나는 더욱 착하고 바른 아이로 감화되었다(현재까지도 우리 집 식구들은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술을 마시지 않고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다.).

회개한 나는 더욱 성실하고 흠잡을 데 없는 크리스천의 삶을 대학교 2학년 초까지 이어갔다. 나 자신의 욕구보다는 신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삶에 몰두했다. 결과는 승승장구였다. 성적은 수직상승했고 주위에서의 평판도 좋았다. 결국 명문대로 꼽히는 이화여대에 진학했다. 그리고 입학 첫 주 부터 스스로 기독교 동아리를 찾아 들어가 모든 과정을 순탄하게 밟았다. 성공적인 수도승 같은 삶이었달까? 그러나 웬일인지 나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잠이 늘어갔다. 2학년 2학기부터는 학교 수업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에도 잠수를 타는 날이 생겼다. 자괴감이 밀려왔고 우울한 날이 늘어갔다. 그러다 신의 계시라고 생각한 선교 준비가 실패로 돌아갔고, 멘토 선배는 나의 신앙심에 의문을 제기했다. 21살의 나에게 신앙은 인생의 전부였다. 가족관계, 인간관계, 미래 설계까지 모두 다 신앙이 중심이었다. 지금까지 통틀어 봤을 때 가장 큰 좌절감을 느낀 때가 바로 이때였다.

은둔형 외톨이: 21~24세

‘네가 뭔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있어?’ 내가 잠수를 타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멘토 선배가 나에게 한 말이었다. 사실 나에게서는 공부까지도 버티는 일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남들은 입시 스트레스로 예민해졌을 때도 나는 공부를 즐기면서 했다. 도덕 과목에 북한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도 ‘나중에 통일되면 북쪽 사람들과 잘 소통해야 하니까 알아둬야지.’ 하면서 어떻게든 동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싫은 일을 잘 버티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파고들었는지도, 왜 그 말 하나에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지도 잘 모르겠다. 어쩌면 그렇게까지 나를 비꼬는 공격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나에게서는 굉장한 약점이었을 수도 있겠다.

2년간의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 말이 머리를 가득 울리는게 너무 아파서 닥치는 대로 미드, 일드,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봤고 아무생각을 안 하려고 갖은 애를 썼다. 이때 한국말은 전혀 안 하고 드라마만 몰입해서 본 덕에 영어와 일본어 회화 능력이 상당 부분 향상되었다. 전공이 중문과여서 중국어는 의무적으로 했기 때문

에 나는 곧 4개 국어 가능자가 되었다.

2년 중 처음 3개월은 선교를 허락해주지 않은 부모님을 일부러 원망하며 문을 닫고 어떤 접촉도 하지 않고 숨어 지냈다. 사실은 그렇게 힘들어했던게 부모님 탓이 아니었다는 걸 엄마에게는 최근에야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더 많이 반대하셨던 아빠에게는 아직도 직접 그 말을 못 하고 있다.

그때는 드라마든 영화든 뭔가를 보며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눈물은 났다. 3개월을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깊은 곳에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답은 못 했다. 그저 증발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 숨 쉬고 있는 것조차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러다 엄마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서 하는 상담가를 만났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라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못 하니까, 자꾸 과거만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을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이 나에게는 희미한 희망 같았다.

1년 정도 지난 후에는 20살 때 동아리 규율 때문에 자발적으로 헤어졌던 남자친구와 다시 만났다. 그러면서 조금씩 밖으로 나왔고 조금씩 용기가 생겼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던 거 다 해볼 거야!’ 그제 반짝이는 세계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

처음 시도했던 일은 애견샵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과 함께 일하는 걸 꼭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애견샵은 동물로 장사하는 곳이었고, 거기 실장은 장사가 안되는 날에는 포르노를 보고 있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인간군상에 질린 나는 한 달 만에 그만뒀고 대신 그곳에서 감기에 걸려 골골거리던 지금의 반려견 돌이를 입양해왔다(하고 싶던 일 두 번째가 실현되었다!). 2년 후에는 반려묘 아롱이를 입양했고 지금까지 둘은 사촌 형제처럼 나름대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왼쪽 사진은 3개월이던 돌이,
오른쪽 사진은 1개월이던 아롱이와
성견이 된 돌이 형제의 모습.

똥이는 나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줬다. 이때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을 멈췄다. 나는 어떻게든 살아서 꼭 이 아이의 마지막을 지켜주리라 다짐했다. 엄마가 키우는 걸 매우 반대해왔고 다른 식구들도 동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나처럼 의욕적이지는 않다.내가 사라지면 이 아이도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입양되겠지. 사실, 나에게는 10살부터 3년간 키웠던 반려견이 있었다. 성견인 상태로 왔지만, 배변을 잘 가리지 못했고 분리불안증까지 있어서 집을 비우고 돌아오면 온 집안을 똥칠해놓았다. 엄마는 견디지 못하고 다른집에 보냈고 그건 현재까지도 우리 집의 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그 꼴을 다시 볼 수는 없었다.

똥이는 운동량이 많은 종이였기 때문에 혹여나 집안에서 말썽을 피울까 겨울에도 밖으로 나가 같이 뛰었다. 뛰니 덩달아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덕분에 지금도 기분이 우울할 때면 일부러 잠깐이라도 달리는 법을 깨달았다. 또 당시에는 웰시 코기가 특이한 견종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에서 모임이 자주 있었는데, 똥이와 같이 웰시코기 모임에도 나가고 그 일환으로 지방에서 하는 애견 마라톤 대회도 참가했다. 활동 반경이 넓어진 것이다. 만나던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지만, 똥이 덕분에 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뛰어다녔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는 않았다.

시민춤단 & PD스터디: 25세

긴 휴학 생활을 정리하고 복학도 했다. 그동안은 동아리 활동 때문에 못갔던 철학과 세미나, 정치 세미나, 저널리즘스쿨 등 다른 활동에도 참여했다. 그러다 교내에 붙어 있던 서울문화재단의 시민 춤단 모집 포스터를 보았다. 한 번도 막춤을 춰본 적도 없었지만,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춤단 오디션에서는 무용과 전공생들 사이에서 눈을 꼭 감고 막춤을 춘 뒤 합격을 했다! 세상에!

춤단 활동을 하면서 다시 나는 공동체에 속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매주 토, 일 이틀간 춤단 워크숍이 진행됐고 워크숍이 끝나면 같이 맥주 한 잔씩을 했다. 중학생 때 술을 마신 이후로 오랜만에 누군가와 어울려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이다. 관심사가 비슷한 젊은이들이 모여 있으니 시간가는 줄 모르고 동이 틀 때까지 마셨고, 그 덕에 같이 술 마셨던 그룹은 <아침이슬단>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활동이

끝난 지금까지도 같이 놀았던 사람들과는 지금까지도 종종 만난다.

교회 공동체에 오랫동안 속해 있었고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춤을 추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다. 전공이 무용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처럼 평범한 전공을 공부하는 또래 친구들도 있었고, 덕분에 여러 재미있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 그전에는 주말마다 뭐 할 게 없나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제는 SNS에 이것저것 이벤트 공지가 많이 올라왔고 주말마다 가고 싶은 문화예술 이벤트가 잔뜩 생겼다!



왼쪽 사진은 야외 클럽 이벤트에서 미러볼 탈을 쓰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태평로 하이서울 이벤트에서 탱고를 추고 있는 모습.

춤을 추는 동안은 내가 완전히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분명 내 몸은 그대로 서울에 있지만,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 그리고 내가 춤을 추고 있는 이 공간은 어느 신비로운 나라인 것처럼 느껴졌다. 어릴 때부터 기다려온 새로운 무언가를 드디어 만난 것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시민청에서 하는 안은미 컴퍼니의 시민 무용 공연을 보러 갔는데, 여기서는 내가 꼭 빠졌던 스토리텔링 연극을 하는 극단 <나나다시> 사람들의 무용 공연이 있었고, 클로징 공연을 ‘야마가타 트웍스터’가 했다. 이후 극단 <나나다시>의 연출인 언니가 주축이 되어 기획한 ‘클라인쿤스트 파티’라는 예술 파티에도 서포터즈로 참여했고, 극단 <나나다시> 연극의 열정 관객으로, 친구로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다. ‘야마가타 트웍스터’로 알려진 한받님은 그저 좋아하는 뮤지션으로 혼자만 열광하고 있다가 2017년의 동아시아 네트워크 페스티벌에서 인간적으로 교류하기 시

작했다. 처음으로 이 시기에는 이렇듯 동경하는 예술가와 친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대학 졸업반이 되고는 미래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장래 희망은 신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직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을 위해 준비하고 싶었다. 당시에 좀 반짝반짝하다 싶은 애들은 방송국 예능 PD를 지망했다. 나 또한 은둔형 외톨이 시기에 무한도전을 정주행했고 영상 콘텐츠를 많이 봤기 때문에 PD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과 명예가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에서였다.

PD가 되기 위해 하는 스터디조차도 경력자 우대에, 작문 하나 정도를 같이 제출해야 했다. 나는 전공 수업에서 과제로 지은 한시를 대충 산문으로 짜깁기해서 냈다. 제목은 지렁이로, 촉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기관이 퇴화한 지렁이를 통해 우리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실정에도 어두운 모습을 빚대려는 의도였는데 아무도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다고 한다. 나중에 스터디원들과 친해지고 나서 들은 것이지만 당시 멤버3명 중 2명은 반대였고 1명이 적극 찬성한 덕에 들어갔는데, 그 1명도 글의 의도는 몰랐고 내 글이 독특해서 찬성했다고 한다.

PD 스터디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작문한 것을 돌려 읽고, 시사 문제 쪽지 시험을 봤다. 첫 스터디였지만 멤버들과 죽이 잘 맞았고, 글을 쓰는게 재미있었다. 당시에는 ‘강남역 1번 출구’라는 키워드가 방송사 PD 시험에 나와서, 시험 준비생들은 모두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을 쓰려고 골몰했다. 우리도 각자 생뚱맞은 제시어를 내고 추첨을 통해서 뽑은 다음에 글을 썼다. 나는 ‘정제’라는 제시어에 아르마딜로와 성애화된 여자 이야기를, ‘비명소리’에는 참전 트라우마를 가진 할아버지 이야기를, ‘단절’에는 바벨탑이야기를 풀어냈다. 앞에 언급한 ‘지렁이’는 스터디원들의 피드백 덕에 3번 퇴고해서 당당한 나만의 대표작이 되기도 했다!

PD 스터디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것은 MBC 시험을 보고 나서부터였다. 작문 시험이 그렇게 생뚱맞게 나오지도 않았을뿐더러 몇 천대 일이라는 경쟁률을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홍대 캠퍼스를 가득 채운 사람들로 시험 끝나고 밥 먹을 곳도 마땅치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 속 애벌레 탑이 떠올랐다. 사람들이 몰리니까 나도 거기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뒤로 스터디는 그만뒀지만 함께했던 사람들과는 여전히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스터디원 중에 정말

PD가 된 사람은 한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드라마 PD로 생고생하다가, 지금은 다른 스터디원 2명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을지로에 와인바를 차렸다. 다른 사람들은 광고계에 취직하거나 문화예술 이벤트를 소개해주는 스타트업에 들어갔고, 일반회사에 취직하기도 했다.

융합형 인재: 26~27세

나는 다시 한번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금까지 내가 자발적으로 해온 것은 무엇인가?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해서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책 『어린이가 지구를 지키는 101가지 방법』을 읽고 재생지 만드는 법을 따라하기도 했다. 장래희망도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꽤 오랫동안 수의사였고, 자연 다큐멘터리 감독, 그린피스 활동가가 되는 것도 꿈꿨다. 그리고 막은 둔형 외톨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는 녹색당에 직접 가입해 당원이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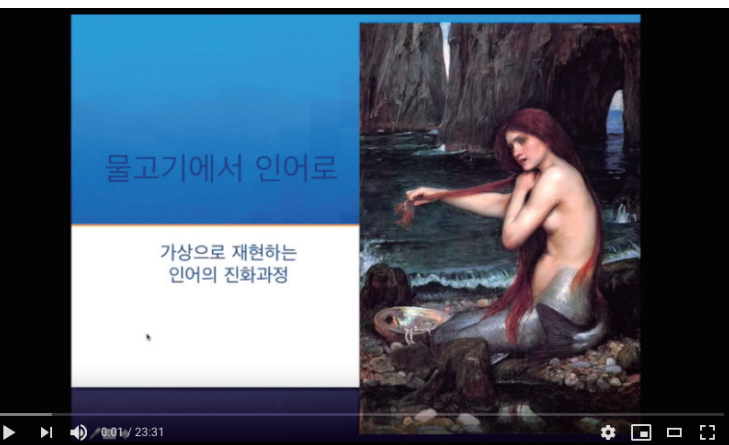
그러나 이미 나의 관심사는 예술, 서비스 디자인, 영상, 마케팅, 역사, 철학, 문학 등 다방면으로 흩어져 있어서 도무지 그런 여러 가지 흥미들을 충족시킬 만한 일이 생각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다양한 대외활동을 지속할 만한 체력이나 정신적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SCL(서울크리에이티브랩)의 시민 교육 프로그램 수업을 들었고, 그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님의 소개로 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이라는 대학원 과정을 알게 되었다.

2016년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각 대학에서 다양한 융합형 교육 과정을 쏟아내던 시기였다. 마침 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은 내가 다니던 이화여대의 대학원 과정이었고, 교내에서 열린 대학원 페어에서 나는 강하게 ‘이거다!’라는 확신을 얻었다. 본 교육과정은 기존의 에코과학부(생태학, 동물행동학 등 순수 과학 대학원 과정)에 디자인, 미디어, 교육, 공학 등 여러 학문이 융합된 협동과정이다. 생태학자로 명망 높은 최재천 교수님과 같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이다. 한곳에 집중하는 것이 곧 모든 걸 충족시켜준다! 이곳에서 나는 다양한 학문적 호기심을 채우며 즐겁게 공부했다.



이화여대 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의 학과 소개
(출처: 이화여대 대학원 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 <http://ecocreative.ewha.ac.kr/>)

힘써야 할 곳을 알게 된 이상 우물쭈물할 수는 없었다. 마침 여름학기에 졸업하면 8학기를 마치고 바로 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의 1기생이 되는것이였기 때문에 나는 부랴부랴 졸업 준비를 했다. 중어중문 외에도 동아시아학을 복수전공 했기 때문에 나는 두 개의 졸업논문을 완성해야 했다. 평소 카페인에 약해서 커피도 못 마시는 나는 핫식스를 마시며며 논문을 썼다. 사실 논문이라고 해봤자 학사 논문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논문이라고 부르기도 우습지만 쓰는 과정은 즐거웠다. 중국의 신화적 존재들을 집대성한 『산해경 山海經』에 대한 나름의 풀이를 한 것을 중문과에 제출하고, 한·중·일의 용궁 신화를 비교한 것을 동아시아학과에 제출했다. 이 시기 신화적 존재에 대한 관심은 대학원 과정 중에도 이어져서, 생물의 진화와 관련된 수업 때의 과제로 인어의 진화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기도 했다.



생물의 진화 과정을 다룬
<내 안의 물고기>를
참고해 만든 인어의 진화과정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2년간 본 과정에서 내가 들은 수업은 창의적디자인사고 워크숍(디자인), 에코사회적기업론, 에코과학세미나, 에코생명과학개론, 생태계와 환경영향평가(환경공학), 동물다양성과 계통(계통생물학) 등 다양했다. 비과학 전공자들을 위한 생물학 수업이 기본적, 의무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싸맬 일 없이 적당한 어려움을 느끼며 수업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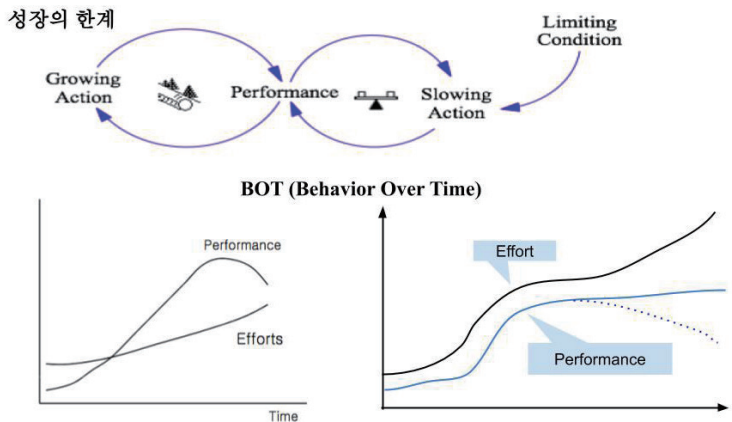
나는 에코미디어 전공생으로 분류되었지만, 대학원 과정의 절반은 SD(System Dynamics)라는 본 교육과정의 공통 융합 방법론이었던 학문에 몰두했다. SD는 어떤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인과관계에 주목하여 그 시스템의 흥망성쇠를 분석 또는 예측하는 틀이다. 이 방법론은 주로 기업체나 단체, 정책 등의 시스템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비즈니스 컨설팅에 사용되는데, 나는 가장 가깝게 내 개인적인 영역의 활동과 성과를 분석하는 자기계발의 도구로 사용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최근까지 소속되었던 을지로의 힙플레이스에 적용했고, 결국에는 그만두게 된 이유도 이런 분석 틀을 활용했기 때문이었다. 초기에는 SNS에 그곳에서 하는 DJ 파티, 독립영화 상영회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영상을 올렸고 차츰 방문객과 팔로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결국 가장 인기가 많은 콘텐츠인 DJ 파티가 에너지 투입 대비 수입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는 다 묻히고 DJ 파티, 특히 2000년대 가요 장르가 우점하게 됐다. 그러나 DJ 풀에 한계가 있고, 2000년대 가요장르에 나를 비롯한 멤버들이 금방 질렸고, 파티가 지속할수록 진상 고객

등에 의한 스트레스가 증가했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 결국 근 3개월 안에 나를 포함해 멤버의 절반이 일을 그만두었다. 전형적인 성장의 한계 모델이었다.

말이 썼지만, 어쨌든 대학원 과정은 확실히 가능성이 확장되었던 시기였다. 학과 유일한 중국어 가능자로서 나는 학교 자연사박물관 전시문을 중국어로 번역할 기회를 얻었다. 학부 때는 원어민 수준의 학생들 사이에서 중문과 꾸구리로 지냈지만 대학원에서는 중국어가 가능한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또한 자연사박물관의 관장을 겸직한 학과장님 덕분에 EBS 다큐멘터리 PD님을 소개받았고 한중 합작 다큐멘터리제작팀에 들어갔다. 2017년이었던 당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사실상 취소)되어 기획 단계밖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방송 다큐멘터리라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다! 또한 이때 자료조사 했던 경험을 자료적 토대로 삼아, 주제는 중국 수당 교체기의 흥망성쇠, 이론적 배경은 SD의 리질리언스*), 방법론은 내용분석으로, 당나라 황제들의 어록을 분석한 석사 논문을 썼다.

Limits To Growth- 천당과 지옥



SD의 대표적인 아키타입 중 하나인 '성장의 한계' 모델. 동일한 시스템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순환과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
(출처: 정창권 교수의 시스템다이나믹스총론 강의안)

*) (Resilience)란 '회복 탄력성'이라는 의미로, 시스템에 충격이 가해진 이후 시스템의 성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뜻한다. 주로 학계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시스템을 더 빨리, 혹은 더 안정적으로 복구시키는지, 즉 어떤 원인으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지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이 학문은 처음 생태학에서 탄생했는데, 이후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방송작가: 28~29세

석사과정을 졸업한 즈음의 나는 상당히 의욕적인 구직자였다. 유일하게 집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아버지가 무릎 수술을 하게 되는 바람에 나에게서는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다. 그리고 2년간의 대학원 생활로 학문적 즐거움은 가득했지만 내가 과연 ‘돈 벌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다. 그리고 학위라는 ‘계급장 떼고’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도전정신도 있었다. 그렇게 방송국 막내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첫 직장이었던 EBS 방송프로그램 <하나뿐인 지구>에 지원할 때, 대학원 과정인 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이라는 네임벨류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듯하다. 그리고 나는 상당히 의욕적이었기 때문에 아이템 회의를 할 때면 5~6개는 기본이었고 많게는 20개까지 아이템을 준비해갔다. ‘안 되면 되게하라.’가 그 당시 나의 좌우명이었던 것 같다. 섭외 전화를 할 때도 영혼을 팔 것처럼 납작 엎드렸고, 여차하면 방송국 숙직실에서 자면서 매일 기본 12시간을 일했다.



<하나뿐인 지구>의 동료 작가들과 녹색 간식들로 작은 그린 파티를 개최함(자비로 구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갖 잡무는 나에게 몰렸다. 왜 그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자괴감에 빠져 있었는데, 마침 대학원 동기이자 방송작가 출신인 언니가 대신 화를 내 주었다. ‘그걸 왜 은정 씨가 다 해?’ 앗?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물음이었다. 해외 출장에 2부작 방송이었지만 준비 기간은 한 주 방송 준비 기간과 똑같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일이 많았는데, PD며 메인 작가는 모든 지시를 나에게만 쏟아놓고 있었다. 그제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선배들의 충고가 떠올랐다. 어쨌든 꾸역꾸역 방송을 마무리 지어서 결과적으로는 시청률도 잘 나왔고, ‘올해의 프로그램상’ 후보에도 올랐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나는 방송국이 가장 나와 맞지 않는 체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방송은 잘한 것으로 칭찬받는 것보다 잘못된 것으로 질타받는 일이 허다하다. 내가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잘했다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다. 속으로만 생각하거나 나중에 팀을 옮길 때 다른 PD에게 정보제공용으로 칭찬하는 정도다. 나처럼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을 부려먹기 딱 좋은 사악한 전략이다. 역시나 열정 노동으로 악명 높은 곳이다. 열정 노동으로 부려먹으려면 최소한 내가 뭘 잘하는지 알려주고 앞으로 더 발전할 자양분을 제공해주는 게 상도덕 아닌가?

또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는 그게 모두의 성과물인 양 창의성과 성의 등을 쏟아 넣을 것을 강요받는데, 결국 대부분 작품에 대한 상인 백상예술대상 등 굵직한 방송콘텐츠의 수상 주체는 PD이고, 일부 촬영감독, 미술감독이 수상한다. 비정규직인 메인 작가는 물론 그 그늘에 가려지고, 나 같은 막내 작가, 조연출, 촬영 보조 등의 수고와 노력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고우면 입봉하라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입봉한 메인 작가들은 그들의 조합체인 구성작가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잘 한 메인작가에게 상을 주기도 하지만 대중에 알려지기는 힘들다. EBS 구성작가협회에서는 매년 막내 작가상을 수여 하기도 하지만 수상 이유는 그 막내 작가가 엄청나게 열심히 ‘메인 작가처럼’ 일하기 때문이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 안타깝다.’라는 게 그 막내 작가를 추천한 이유였는데, 내 눈엔 뻔한 열정 노동의 덧처럼 보였다.

이후 나는 대학원생 때 참여했던 한중 합작팀 PD님의 소개로 다른 한중 합작 다큐팀으로 이동했다. 프로젝트성 프로그램인 <다큐프라임>이었고, EBS 내에서 연차도 높고 티켓 파워도 있는 PD님의 팀이었기 때문에 근무 환경은 꿀이었다. 물론 그것도 PD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식권 문제로 시작된 법적 문제 때문이었다. 지금은 <방송작

가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도 생기고, 계약서가 의무화되었지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막내 작가들은 PD 및 메인작가들의 지시를 받고 최소 평일 ‘10 to 6’으로 일하고있다. 그러다 방송국에서 팀마다 식권 수를 제한했는데,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고용된 것이 아닌 막내 작가들에게 가는 식권을 줄여야 한다는 지침 같은 게 내려진 것이다. 다른 레귤러*) 팀 중에서는 근무 시간 및 급여는 변함없고, 식권만 줄이는 양아치 같은 짓을 한 팀도 있었지만, 다행히 우리팀은 근무 시간만 주 3일로 줄여줬다. 왜냐하면 회사 법무팀에서 현재의 근무 시간을 유지하면 나중에 퇴직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조언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는 담당 PD님이 주 2일 출근을 지나가듯 말했는데 나는 그 말을 이용해서 한동안 주 2일만 출근했다(이حت).

방송국에서 7개월 정도 일을 하니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익숙해졌고 나도 스멀스멀 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졌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당시 메인작가님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활동하는 구성작가 중에서 경력도, 능력도, 인성도 최고인 분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분은 그동안 내가 만난 방송계 종사자와는 다르게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었다. “네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데 그래.”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다. “작가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아끼실 수 있어요?”하고 물으니 “사람 귀한 줄 모르면 어떻게 휴먼 다큐 하나?”고 되받아치신 분이다.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실 텐데도 그런 무조건적인 신뢰와 지지가 감동적이었다. 지금도 나는 이분의 입버릇인 ‘글은 단정히 쓰고, 내 길은 뚜벅뚜벅 걷고, 사람을 대할 때는 정중히 해라.’ 이 세 가지를 가슴속에 품고 있다.

그리하여 방송국에 출근하면서 2018년 1월부터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가장 처음 기획하기로 한 소재는 현재까지 5년째 투쟁하고 있는 철거민 청년 이희성 씨의 이야기로, <도시난민 희성씨>(가제)이다.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로 입주하다가 쫓겨나고 용역들의 괴롭힘 때문에 투쟁을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구청이 그의 주민등록 직권말소 시켜버렸다. 2015년에 시작한 투쟁으로 지금까지 4대 보험, 직업, 거주지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 오랫동안 재개발 예정지를 전전해온 나로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성 씨를 비롯해 여기저기서 쫓겨난 사람들의 최후의 보금자리인 경의선 공유지의 컨테이너 마을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 희성 씨가 투쟁을 마무리할 때까지 꾸준히 촬영할 계획이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 방송을 내보내는 프로그램. 주로 4~6팀이 돌아가면서 몇 주간의 제작기간을 가지고 방송프로그램을 만든다.

진행중인 다큐 리스트



도시난민 회성씨
(17. 2~)



나림(降; Descent)
(19. 04. 11~)

한밤의
아시아자립음악여행
(18. 12. 4~15)



Handpan is Listening
(19. 4. 24~)



그 외에도 지금까지 3개의 다큐멘터리 소재를 더 구상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존경하는 활동가이자 뮤지션인 <한밤의 아시아 자립 음악 여행>(가제)이다. 한밤*님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연구 지원금을 받아 아시아 자립음악 연구서를 제작 중이고, 그 연구의 일환으로 2018년 12월에 대만, 인도네시아, 홍콩 등지로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미 2017년 초겨울에 나는 친구들의 아시아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 밴드 친구들의 대만, 홍콩, 중국 투어에 따라가서 교류했기 때문에 꼭 그 친구들과 한밤님을 이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한밤님과 함께 대만, 홍콩의 자립 음악인 친구들을 만났고 촬영을 했다. 두 주체는 음악, 젠트리피케이션, 사회 운동이라는 공통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서투른 영어로도 마음에 맞는 대화를 했다. 이 편은 주요 촬영은 끝났고 편집과 필요하다면 추가 촬영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다.

세 번째 소재는 3개월 전에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된 내 친구의 이야기인 <나림(降; Descent)>(가제)이다. 가깝게 알고 지낸 지 2년이 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절과 산을 찾아가 기도를 한다고 하더니 신내림을 받기로 했다고 전해왔다.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나는 무속이나 한국 전통 신앙에 대해서 까막눈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들려주는 전통신앙관이 신기하기만 했다. 친구는 페미니즘, 성 소수자 운동 등 사회

*) 민중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명으로는 아마추어 종폭기, 아мага타 트웍스터, 스트레칭 저니 등을 사용하고 있다.

운동을 해왔고, 오래 채식해왔다. 그러더니 그 친구에게 찾아온 신들도 젠더플루이드(성별이 유동적으로 전환되는 젠더)적인 신들이나 소수자들을 감싸주는 신들이었다. 그 친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무속 세계에 비해 전통적으로 여성이 무당이 되는 경우가 많고, 무당의 역할도 성 고정관념에서 자유롭다고 한다. 또 소수자인 어린이, 장애인, 이민자, 조선 시대 천대받은 예술인 등이 죽어서 신으로 온다고 한다. 굿을 할 때 무당이 가채를 쓰고 그 위에 갓을 올려 노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무당이 성별을 넘나드는 존재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임신중절을 한 여성이 의뢰한 굿을 도와주려 간적이 있었는데, 친구에게 썬 신은 ‘임신 중절하기를 잘했다.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태어난 아기도 불행했을 것이고 너도 그 때문에 그 남자에게 휘둘러 살았을 것이니 불행했을 것이다.’라고 위로해줬다고 한다.

친구가 신내림 받았던 올해 4월부터 조금씩 짝고 있는데, 우선은 신들의 특성 및 신화, 구도와 미장센 등 공부를 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보고 싶은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매력에 빠진 핸드팬이라는 악기에 대한 다큐멘터리 <Handpand is Listening>를 준비하고 있다. 핸드팬을 처음 본 것은 작년 2월 태국의 히피 페스티벌에서였는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것은 1년 후 같은 페스티벌에서였다. 그 뒤로 중국 윈난에서 한 중국 월드 뮤직 & 핸드팬 페스티벌에 관객으로 갔고, 그곳에서 세계 곳곳의 핸드팬 연주자들과 친분을 쌓아, 즉흥적으로 2주 뒤 도쿄에서 열린 도쿄 핸드팬 페스티벌로 갔다.



2019년 4월 중국 윈난에서 열린 월드뮤직&핸드팬 페스티벌에 참석했을 때.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이벤트 장소의 정원에서 즉흥 잼을 하는 친구들과 그걸 들고 있는 나의 모습.

핸드팬은 UFO 같은 모양의 쇠로 만든 악기인데, 2000년 스위스에서 발명된 젊은 악기다. 소리로 아름답지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악기이기 때문에 즉흥 잼이나 버스킹같이 자유롭게 연주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SNS, 특히 유튜브에 자신의 연주를 올리고, 오프라인으로 핸드팬 페스티벌을 열어 서로서로 노하우를 교환하고 있다. 핸드팬 메이커들은 모두 그 악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직접 연주자이기도 하며, 핸드팬 케이스 등 액세서리도 소규모로 제작 판매한다. 연주자-메이커-관객의 경계가 모호하고 굉장히 활발한 DIY 씬을 구축하고 있다.

핸드팬의 또 다른 매력은 숙련도에 상관없이 핸드팬을 치는 연주자마다 자신의 개성이 뚜렷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핸드팬과 연주자의 관계에는 반려인과 반려동물 관계 못지않은 애뜻함이 있다. 금이야 옥이야행여 녹이라도 슬까, 흙집이라도 날까 8kg의 커다란 거북이 등딱지 같은 악기를 조심조심 다룬다. ‘My Princess’, ‘My baby’ 등 온갖 애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나는 핸드팬도 없고, 연주해보지도 않은 상태로 페스티벌의 워크숍에 참여했는데, 감사였던 친구는 “새로운 핸드팬을 만나면 예전 핸드팬을 치던 방식으로 똑같이 접근하면 안 된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핸드팬을 친지 얼마 안 되는 친구도 “핸드팬은 연주를 하는 환경의 소리를 들어. 산속에서 칠 때랑 도심 한가운데에서 칠 때랑 소리가 다르거든.”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핸드팬이란 우주의 멜로디와 연주자 영혼의 멜로디를 공명시켜주는 창 같은 것일까?’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

힙스터&히피: 30~31세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나는 방송국으로 출근을 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에 더해 올지로 힙플레이스의 크루가 되었다. 방송국에서 더 일한다고 해도 당시의 주 2회 출근이라는 근무환경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을 알았고, 더 누군가를 서포트하는 역할은 지긋지긋했다. 그리고 이런 반짝반짝한 문화예술공간에서 스텝으로 소속되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래서 구인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나름 레트로한 컨셉에 맞춰 100문 100답으로 이력서를 만들어 지원했다.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지만 화려하고 재미있는 컨셉에 이끌려 무작정 면접을 봤다. 면접 날 처음 방문했고, 그다음 주말 저녁에 DJ 파티에 맞춰서 갔고 반

은 의도적으로 열심히 춤을 추고 놀았다. 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스텝으로 합격했고, 이후 1년 2개월간을 일했다. 거기서는 나를 평등한 문화를 위해서 닉네임으로 서로를 불렀는데, 내가 첫 출근날 차이나 풍의 옷을 입고 가자 바로 ‘춘리’로 하자고 정해주었다.



‘춘리(2018.3~2019.5)’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모습.
(출처: [유튜브] 감티비 00화)

그러나 즐거운 것도 한두 달이었다. 춤단 활동을 할 때는 주말마다 아침까지 놀기도 했지만, 막상 일하니 신나는 노래도 질렸고 가끔은 헌팅을 하거나 진한 스킨십을 하는 진상 손님들에 시달려야했다. 이것저것 재밌는 걸 잔뜩 하고 싶어서 들어갔지만, 이래저래 체력이 달리니 무언가를 창작할 여력이 남지 않았다. 결국 인생의 낙이었던 춤에도, 음악에도 흥미가 떨어져 이후 6개월 이상은 별다른 낙 없이 평온하게 살았다. 표정도 굳어졌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반짝이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은 채 그저 버티는 삶을 살다. 사실은 그때는 별로 문제를 느끼지 않았는데, 어느 날 타박상을 입은 손님에게 밴드를 붙여 주면서 깨달았다. ‘나 원래 이렇게 남에게 감정이입 잘하는 착한 애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여러 가지로 많은 좌절을 경험했던 때인 것 같다.

안주하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올해 4월 말 중국 윈난의 월드뮤직&핸드팬 페스티벌에 갔을 때부터였다. 중국 내 히피들의 성지인 윈난 다리에 세계 곳곳에서 초청된 핸드팬 연주자들이 모였고 그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함으로써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하는 강한 울림을 느꼈다. 페스티벌은 역대 최악의 페스티벌이었지만, 나는 최악의 상황에서 ‘좋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옆에서 보게 되었다. 화를 낼 사람과 아닌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자신의 감정

을 컨트롤하는 것은 감동적이었다. 그 친구들은 연주할 때마다 흐트러지지 않고 최고의 음악을 들려줬다.

본 글의 맨 처음에 나온 인용구를 얘기해준 친구도 이때 만났다. 이후 도쿄 핸드팬 페스티벌도 같이 갔는데, 도쿄 핸드팬 페스티벌은 최고의 페스티벌이었다. “우리가 최악의 페스티벌도 경험했고, 최고도 경험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지 알 수 있게 된 거야.” 이 시기에 만난 연주자 친구들은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알려주었고, 영혼으로 이어진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다.

두 페스티벌을 다녀와서 나는 나의 감정, 에너지, 시간을 소중히 하기 위해 올지로의 힙플레이스를 그만뒀다. 그리고 9월에 영국의 핸드팬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인종차별과 소매치기가 두렵긴 하지만 덕분에 좀 더 강인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동굴에 모여 사는 히피들, 길거리의 여러 버스커를 만나고, 또 최근에 빠진 북아프리카 및 아라비아 음악과 춤을 경험하고 싶다! 역시 똥인지 된장인지는 먹어봐야 아는 법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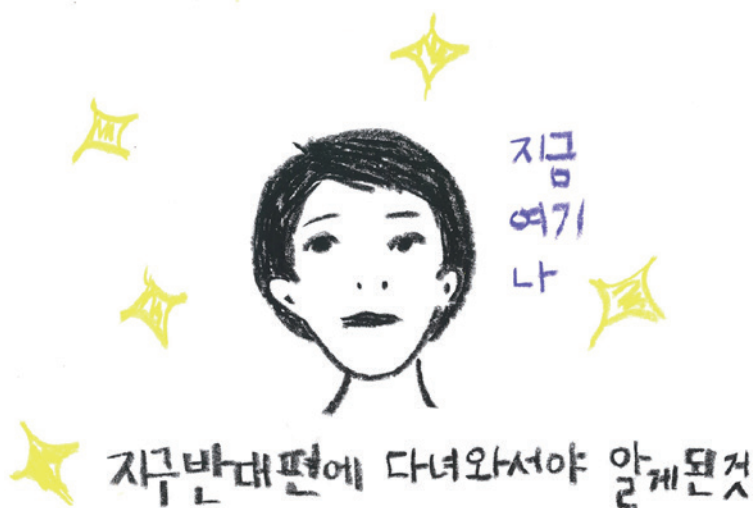
나에게 실패란?

나에게 실패란 전환의 시그널이다. ‘빠-’하고 인생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하던 일을 정리하고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휴식을 가지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본다. 은둔형 외톨이 시기에 나는 ‘나에게 실패할 자유를 주자!’고 다짐했다. 그 이전에 말 잘 듣는 아이였을 때는 신의 뜻을 따르거나 부모님, 선생님 등 윗사람이 제시하는 ‘검증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몰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했다. 나라는 사람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 뒤로도 몇 번의 크고 작은 실패 혹은 좌절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시기가 오면 그동안 내가 충족시키지 못한 나만의 욕구가 무엇이었나 살피고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삶의 전환을 준비한다.

지구반대편에 다녀와서야 알게 된 것

탱고안무가 소정

2019. 7.3 <“지구 반대편에 다녀와서야 알게 된 것” -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살기> 강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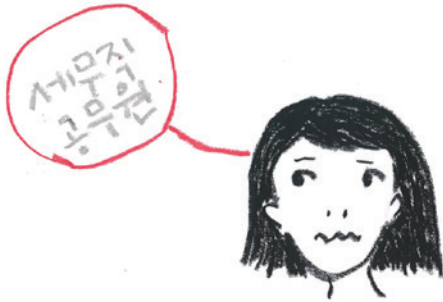


실패한 대학 생활, 실패한 수험 생활, 실패한 직장 생활



왜이소치고 우울한 대학생

원했던 인서울 대학교에 입학했고,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되었지만 친구들을 사귀기가 어려웠고, 학교에 가는 것이 싫었다. 학생회 친구들은 싹싹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는데 그런 친구들과 내 성격을 비교하면서 더 주눅들었다. 성적은 당연히 좋지 않았고, 우울한 시간이 대부분인 채로 스무 살을 보냈다. 겁도 많지만 호기심도 많은 성격이라 요리와 제빵을 배우러 학원에 다니기도, 사진 동아리활동을 하기도 했다. 다른 과 수업에도 기웃거렸고 특히 회계 수업이 재밌고 성적도 잘 나왔다. 부모님의 끈질긴 공무원 시험 제안에 처음엔 완강히 거절했으나 ‘너는 창의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편이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공무원이 제격이야’라는 말에 결국 굴복하고야 말았다. 한학기를 남겨둔 채로 휴학을 하고 세무직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이것도 못하면 난 정말 끝이야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합격만을 목표로 달리기를 시작하니 정말 공무원 시험에 붙고 싶다는 욕망이 내 것처럼 느껴졌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했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으나 이것마저 못하면 정말 앞으로의 인생은 대책이 없겠다 싶어서 절박했다. 나를 몰아세우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니 점차 지쳐갔다. 일 년 후 시험엔 모두 탈락했고, 부모님과 오빠들에게 이젠 그만 하겠다고 선언했다.

느리긴 하지만 나만의 속도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좌충우돌하면서도 천천히 해내는 힘이 있는 나, 신중하고 겁이 많아 어려워할 뿐 내면에 호기심도 열정도 그득하고, 맘먹은 일 앞에서는 의외로 적극적인 나를 그때는 부모님도 나 자신도 몰라줬던 것 같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달라졌다

스물 셋까지의 인생 중에 노랑진에서 보낸 일 년 남짓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그런지 다시 돌아간 학교생활이 해볼 만하게 느껴졌다. 전에는 관심 없었던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미뤄뒀던 사회복지 실습을 하고, 난생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 손으로 돈을 벌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꽤 경쟁률이 높았던 연합토론동아리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바도 하고, 동아리에도 붙고, 실습도 무사히 마치고, 졸업시험도 합격하고, 소소한 성공들이 자랑스러웠다.

첫 회사는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이었다. 십 여 군데에 입사지원서를 내고, 네다섯 군데에 면접을 본 후 합격했다. 취업난을 몸소 경험한 덕분에 감사하고 충성심 가득한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다. 사회에 도움이되는 인간으로 살겠다는 거대한 포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의 부조리한 면들을 하나둘 발견해가면서 실망감으로 변해갔다. 이걸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말할 수가 없어서 맘에만 쌓아두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나의 직속 상사는 나를 대놓고 싫어했고 날이 갈수록 나도 회사가 싫었다. 어떻게든 힘든 시기를 버텨보기 위해 퇴근 후에는 인권단체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동료의 추천으로 탕고를 배우기 시작했다.

탱고를 시작하자마자 폭 빠져버렸다. 땀을 흘리면서 춤을 추면 낮에 일터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았다.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습관적으로 여자들의 외모를 폄평하는 오빠 둘과 자랐기 때문에 나는 유난히 외모에 자신감이 없었고 나를 꾸밀 때에도 남의 시선을 의식했다. 탱고 바에서 외모나 체형에 관계없이 예쁜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미는 언니들의 모습이 그렇게 당당하고 멋져보일 수 없었다. 처음으로 민소매옷을 입어봤고 알록달록 실키실키한 꽃무늬 스커트를 입어봤다.



힘들 직장생활 탱고와의 만남

탱고는 파트너와 함께 추는 춤이라서 둘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 상체를 가깝게 하고 서로를 안은 상태에서 춤을 추지만, 상대방에게 내 체중을 아주 기대지 않아야 하고, 상대와 떨어져도 넘어지지 않고 혼자 설 수 있어야한다. 혼자서도 중심을 잘 잡고 설 수 있어야만 함께 춤을 출 수 있다. 이 원리가 탱고에서 뿐만 아니라 삶에도 적용된다. 춤을 배우면서 삶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점이 더욱 매력으로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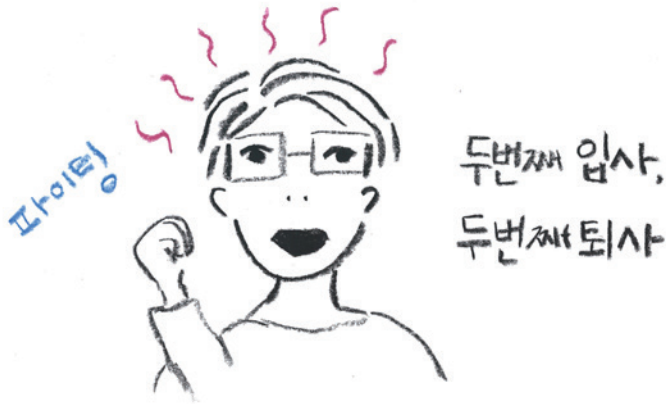


탱고 음악에 맞춰서 파트너와 걷고 춤추면 다른 세상이 되었다. 시간이 다르게 흘렀다. 회사 일로 참고 쌓으며 지내던 그 시기에 음악을 통해 춤을 통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다. 발산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일을 그만둬야한다는 생각이 커졌다. 마음에 매듭을 쌓이게 하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더 진심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나와 맞는 다른 곳을 찾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퇴사했다.



퇴사 후 한 달쯤 지나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 사서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마침 사서 보조직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씩 해보자고 나름대로 용기를 낸 것 이다. ‘일하는 곳이 이태원 근처이니 외국인 손님도 많겠지?’ 생각하며 아침마다 영어회화 학원에 다니고 저녁까지 일을 하며 열심히 지냈지만, 막상 일 자체는 사서와는 별 상관없는 단순 서비스직이었고 똑 같이 반복되는 일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다. 일을 그만두고, 시민단체 쪽으로 입사 지원을 수차례 했지만 가고 싶은 회사는 나를 뽑아주지 않고, 합격한 회사는 맘에 들지 않았다. 별 성과 없이 두 달 정도가 지나는 동안 잘 못 챙겨먹고, 신체 활동이 줄어들더니 금세 건강이 약해졌다. 이유도 없이 몸 이곳 저곳이 번갈아가며 말썽을 부렸다.

서울에 올라온 엄마가 내 몰골을 보더니 걱정을 하며 고향인 삼례집으로 가자고 하셨다. 집에 가서 한 동안 수영을 배우고 요가를 하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회복했다. 그 때 아빠가 ‘네가 외로움병이 들었나보다’라고 한 말이 크게 와 닿았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삶에 지쳐있었고, 계속 되는 방향 속에서 외로웠다. 이 참에 서울생활을 접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가는 중이었다.



그때 마침,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다.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IT 스타트업 회사였고 어쩌면 내가 서울에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회를 잡기로했다. 전혀 해본 적 없는 분야의 일이라 초반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알지 못하던 것을 배우고, 사회적 기업이나 NGO 단체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즐거웠다. 직함이 아닌 닉네임을 부르며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는 점, 수평적인 의사소통 방식, 자유로운 근무 시간과 형식도 맘에 들었다. 인턴으로 고용된 3개월이 지나고 다른 팀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많았지만 일하면서 스스로 늘 부족하다 느꼈고, 즐겁기보다는 초조했고, 앞날이 잘 그려지질 않아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도 이때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네 요가학원을 열심히 나갔고 요가는 이 시기에 나를 지키며 지낼 수 있었던 고마운 힘이 되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시도한 날들

두 번째 직장을 그만둘 즈음 친구(탕고를 소개시켜준 그 동료)를 따라서 시민 춤단 활동에 지원했다. 평범한 시민 100명이 모여 춤단이 되고 3개월 동안 매주 만나 춤을 추는 프로젝트였다. 특히 마음을 끌었던 것은 전년도 활동영상 속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나의 편견으로 인해 춤추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러워 숨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겨왔던 것 같은데, 한강 잔디밭에서 서로 소통하며 춤을 추는 사람들의 표정이 무척 자유롭고 행복해보였다. 춤단 활동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경험이 되어주었다. 몸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보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움직임을 만들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이 길러졌다. 몸치인 내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 참을 수 없게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았지만, 모두가 춤을 추고 있었고, 나에게 춤을 못 춘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없었기에 부끄러워하면서도 춤을 출 수 있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 춤을 허락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춤꾼들과 친구가 된 것도 좋았다. 3개월 동안 매주 만난 덕분인지, 함께 춤추며 땀을 흘리고 함께 웃은 덕분인지, 그때 만난 인연들이 특별하고 애뜻한 추억으로 남았고 몇몇과는 이후로도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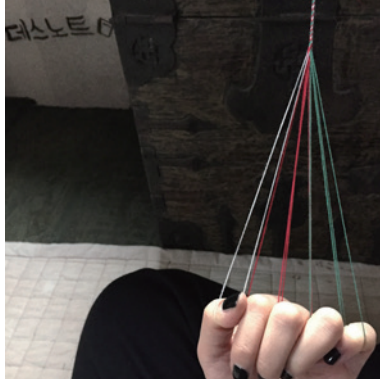


다시 무직 상태가 되고, 춤단 활동도 끝이 나고, 제주에 갈 기회가 생겼다. 지인이 소개한 제주 동쪽의 생태하우스에서 한 달 정도 지냈다. 나뭇가지와 잎들이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아름다웠고, 지붕 없는 야외 화장실에 앉아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근사했다. 세제를 쓰지 않고, 채식을 주로 먹고, 발농사로 신선한 식재료들을 마련하고, 소비는 적게 하면서도 행복을 궁리하며 사는 삶 속에 들어가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다. 직장을 다니지 않고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달까.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데에도 제주에서 보낸 한 달이 큰 영향을 주었다.

자취방을 내놓고 삼례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이사했다. 마침 새해였고 스물아홉의 시작이었다. 취업 따윈 신경 끄고 하고 싶은 일이나 실컷 하자고 다짐했다. 첫 번째 한 일은 책 만들기 워크숍에 참여한 것. 제주에서 썼던 일기를 모아 책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다. SNS에 적을 때는 꽤 그럴듯해보였던 일기가 책으로 엮으니 초라해졌다.

혼자 보는 짧은 일기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글을 써보고 싶어졌다. 평소 좋아하던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 수업을 신청했다. 매주 정해진 책을 읽고, 정해진 주제에 관하여 글을 한 편씩 써갔다. 첫 시간에 돌아가며 자기 소개를 할 때에 ‘내게 좀 더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했는데 10주간 나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고 기다려주면서 정말 나와 가까워지는 기분이었다. 글을 쓰는 시간이 나와 대화하는 시간으로 느껴졌고, 마음에 묻혀있던 것들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다. 마음 깊이 가뒤편에 갇혀 있던 시간 나오지 못했던 말들을 꺼내는 과정을 함께 기다려준 학인들과도 귀한 인연이 되었다.





그밖에도 소원 팔찌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봄이 시작될 무렵에는 자그마한 땅에 감자를, 마당엔 바질을 심었다. 출근하지 않는 삶, 월급을 받지 않는 삶의 불안함을 달래고 싶을 때는 식물들 옆에 가서 잠깐 앉아있었다. 아침에는 식물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는 재미로 눈을 떴다. 평일 2-3일 정도는 호텔에 나가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다. 당분간 호텔 청소 일을 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함께 일하는 분들이 자주 크게 다치는것을 보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접었다. 청소 일을 6개월 정도 하다가 관두고, 식당 서빙 알바를 하며 돈을 본격적으로 모았다.

어느 샌가 탱고는 내가 사랑하는 춤이 되어있었고 어차피 당장 취업 생각이 없으니 아르헨티나에 가서 탱고나 실컷 취볼까 싶었다. 이제 곧 서른이고 변변한 경력도 없는데, 훌쩍 떠나는 것은 스스로에게 무책임한 것이 아닌지 고민이 되었지만 주변에서 모두들 꼭 떠나보라고 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음이었지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가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르헨티나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나라이다. 12시간의 시차가 나고, 그만큼이나 멀리 있는 곳. 비행기를 열 두 시간 타고 다시 열 네 시간 타야 도착할 수 있는 곳. 인천에서 출발해서 꼬박 하루 반을 이동하면서야 ‘내가 이렇게 먼 곳을 겁도 없이 혼자서 가기로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시간 비행의 끝에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을 때 그 당혹감과 설렘, 짜릿함은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그 곳에 도착해서야 나를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정도라면 인정해줄 만 하다고. 지구 반 바퀴를 혼자서 오다니 정말 장하다고. 아마도 나는 대체로 언제나 믿음직스러웠고 수많은 작은 성공과 실패들을 이루어내며 살아왔을 테지만 줄곧 스스로를 잘 믿을 수가 없었다. 나를 믿기 위해서 꽤 큰 한 방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필요했던가보다.



낮선 나라에서 지낸 두 달 동안의 경험은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한국에서는 수강료가 비싸서 탱고 클래스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는데 당시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싼고 덕분에 유명한 마에스트로들의 강의를 한 회에 오천 원에서 만 원 사이로 들을 수 있었다. 수업을 듣고, 숙소에서 틈틈이 연습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밀롱가에 다녔다. 하지만 영어를 못해서, 춤을 못 춰서, 걸핏하면 소심해지고 주눅 드는 나는 거기서도 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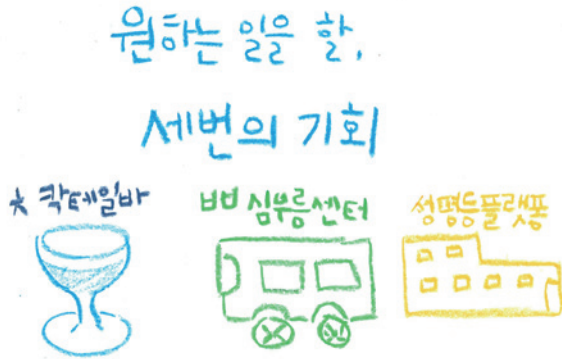
실패와 도전이 뒤섞인 페미니스트로서의 삶



함께 살면서 꾸준히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지만, 여행에 다녀온 후로 더 심해졌다. 부모님의 보수적인 면들에 자꾸만 부딪혔고 싸울 때마다 심하게 소모되는 기분이었다. 미움이 더 커지기 전에 차라리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확보하자고 생각하고 집을 알아보러 다녔다. 서울 살이가 우울했던 게 다 낡은 집 탓인 것만 같아서 월 몇 만원 아끼자고 눈을 낮추고 싶지는 않았다. 별이 잘 드는 집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에 계약했다.

혼자 살면서 감당해야할 가장 급한 일은 돈을 버는 것이었다. 퇴근해도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없고 다만 다음날 출근을 위해 쉬기만 해야 하는 생활이 싫어서 낮에만 짧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벌써부터 나이가 걸림돌이 되는 게 당황스러웠지만 곧 일을 구할 수 있었다. 전주에서 꽤 유명하고 큰 중국 음식점 홀 서빙. 나에겐 숨을 들이 마셔야만 단추를 잠글수 있는 빨간색 상의와 무릎 한참 위로 올라오는 빨간색 스커트를 입도록 했고 남자 직원들은 넉넉한 검정바지에 흰 셔츠를 입도록 했다. 일하기에 옷이 너무 불편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런 불편한 옷을 입어야하는 게 불쾌했지만 맛있는 밥이 제공되고 최저임금보다 시급이 높으니까 적당히 타협하기로 했다. 첫 달

에 통장에 입금된 급여가 60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월세 45만원을 제외하면 생활이 빠듯했다. 매니저님께 부탁해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 외에도 일손이 부족한 날 대타를 뛰었더니 백 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중국집에서 서빙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내겐 몇 달 후부터 일하기로 한 곳이 있었다. 메뉴판은 없고 자신의 취향을 말할 것이 요구되는 카테일바의 바텐더. 자소서에는 성별이나 나이, 외모, 결혼유무, 장애유무 등을 적지 않아도 되었으며 대신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적어야 했다. 지원하고 면접 보는 과정은 바텐더에 대해 가져왔던 편견을 깨는 기회였고, 바텐더라는 생각해본 적 없던 직업과 나를 진지하게 맞춰보는 과정이 되기도 했다. 아쉽게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함께 일할 수 없게 되었지만.

또 한 번은 폐친 분이 자신이 진행하려는 프로젝트를 함께할 수 있느냐고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실제로 함께 일할 기회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한참 자신감이 없고 혼란스러울 때에 누군가 나에게 손을 뻗어준 것이 희망적으로 느껴졌었다. 아,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안심이 되었달까.

중국집에서 일한지 3개월이 지나고, 계속해서 일할지 말지 고민 중일때에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성평등플랫폼이라는 이름의 팀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페미니스

트 정체성을 숨기고, 주변 사람들의 여성혐오 발언과 행동들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웃어넘기는 일이 버겁게 느껴질때 쯤이었다. ‘동료들과 함께라면 차별에 맞서는 일도 조금은 덜 외롭겠지, 여성인권을 위해 일하면 의미 있고 보람도 클 거야’ 기대가 되었다. 알바가 아니라 정식 일원으로써 어디엔가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다.

뭔가를 시작할 때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것이다!’라는 큰 기대를 걸곤 하는데 그로 인해 큰 실망과 슬럼프가 온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역시 조직생활은 나에게 잘 맞는 옷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를 자주 꿈꾼다. 식물을 좋아하니깐 언젠가 꼭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만나거나 알게 되면 이것저것물어보며 내가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리해본다. 술을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니깐, 언젠가 작은 술집을 열어 나만의 분위기로 꾸미고 그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큰 성취는 탕고를 추러 주말마다 서울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매너 없는 사람들과 춤추는 것이 싫어서 반 년 간 탕고를 전혀 추지 않았는데, 여성주의 탕고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움에 찾아갔다. 커플댄스에서는 대부분 선택의 여지없이 남성이 리딩을 하고 여성이 팔로잉을 하지만, 이 곳에서는 모든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고 출 수 있다는 점이 참 멋지다.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에, 밀롱가에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상대 남성에게서 ‘너가 리더 해볼래?’라는 질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순간 당황했고 ‘난 리더 못해.’라고 답하고 넘겼는데 마음 속에선 질문이 생겼다. 그는 왜 여성인 나에게 리더를 해보라고 한 걸까? 실제로 아르헨티나엔 우리나라에 비해 여성리더가 많았다. 수업시간에 성비가 맞지 않으면 몇몇 여성들이 리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서울에 여성추의 춤 모임이 있고, 그곳에서 리더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더욱 반가웠다. 멋진 여성들과 함께 탱고를 배우고 추는 것이 이렇게 신나는 일인지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탱고를 시작한 이후로 쭉 팔로잉만 할 줄 알던 내가 리더를 배우면서 ‘예쁘게가 아닌 멋있게’ 춤을 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밌다. 아직은 초급 수준의 실력이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내가 사는 전주에도 여성들이 모여서 탱고를 출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 공간을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고 싶다.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되고 싶은 나는 높고, 가고 싶은 곳은 멀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있는 그대로의 나, 발 딛고 서있는 바로 이곳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묻고 싶다. 그것을 향해 계속 노력하고 싶다.

나에게 실패란?

어떤 일을 실패와 성공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할까? 탈탈한 언니들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긴 질문이다. 이십대 초반에 나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했고, 당시에는 거대한 실패로 느껴졌다. 합격했다면 반드시 성공이라고 여겨졌을 일이다. 하지만 그 시기에 내가 느꼈던 괴로움과 좌절감이 복학 후에 여러 활동을 시작하고 도전하게 한 동력이 되어주었다. 첫 번째 직장이었던 복지관에서 부조리한 일들을 보고 느꼈던 답답함과 대책 없이 저지른 퇴사, 그로 인해 몇 개월간 방황하고 아팠던 일도 성공보다는 실패 쪽의 일인 듯 싶지만 힘든 회사 생활을 버티기위한 취미로 시작한 탱고는 삶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었다. 탱고와 춤단을 소개해준 친구를 그 직장에서 만났으니 그 입사도 행운이었을지 모른다.

성공은 달콤하고 실패는 아프다는 것이 둘의 차이점이지만, 성공과 실패 모두 차곡 차곡 쌓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된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실패는 절대 겪고 싶지 않은 두려운 일이지만, 아파하는 과정에서 나를 더 알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공은 나에 대한 신뢰 쌓기에 큰 도움이 된다. ‘탱고가 좋으니까 아르헨티나에 가자’는 결심을 따라 돈을 모으고 실제로 아르헨티나에 다녀온 일은 나에 대한 신뢰감을 크게 심어주었다.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준비하던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거나, 글 한편을 완성시키거나, 귀찮음을 물리치고 운동을 시작하거나, 한 달을 무사히 버텨 월급이 입금되거나, 나를 위한 요리를 완성하거나 등등 일상에서 칭찬할 받아야 할 일은 많다. 실패라고 느껴지는 일과 성공이라고 느껴지는 일을 모두 차곡차곡 쌓다보면 어쨌든 나아간다. 이십대 초반엔 나를 잘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에 스스로를 미워했지만 지금의 나는 스스로에게 꽤 괜찮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고 자부한다. 좌충우돌하면서도 결국에는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골로 돌아간 페미니스트

논발상점 박푸른들

2019. 7. 10 <“시골로 돌아간 페미니스트” -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강의 진행



1.

나에게는 그동안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란 이유로 섭외되는 일이 종종 있어 왔다. 그건 내가 어때서라기보다는 거쳐 온 소속 때문이었다. 시험을 싫어하는 난, 내 상황에서 비교적 들어가기 쉬운 소속을 선택해왔는데, 그게 몇몇 그룹 사람들 눈에는 특별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었다.



유명한 농촌 마을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서 나고 자라 풀무학교를 졸업해, 같은 학교 인 풀무학교 환경농업전공과정(전공부)에서 농업을 공부하고, 마을 활동가를 거쳐 농민운동가로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을 벌이는 모습 같은 것들 말이다. 당장 눈에 띄는 할 수 있는 일들을 때마침 마음 맞는 동료들을 만나 해 온 것이 전부인 나로선, 그런 자리에 섭외되면 할 수 있는 말이 얼마 없었다. 그저 잘 모르겠다며 머리를 긁적이는 수밖에.

이런 이유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나 원고 요청이 들어오면 늘 난감했다. 내 하루하루도 잘 모르겠는 나란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심지어 요즘 따라 여러 자리에 불려가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하는 나이지만, 우리 가족은 재가 대체 어딜 저렇게 다니나 늘 의아해한다).



농사짓겠다고 떠벌렸지만 정작 농사짓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나인데,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불필요한 많은 관념들에 얽매어 사는 게 나인데. 이런 곳에 가면 멋진 척 굴어야 할 것 같은데 어찌지. 밀천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정작 날 보게 되면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할 텐데 어떡하지. 분명 무식이 탄로 날 텐데. 섭외 연락을 받을 때마다 부끄럽고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용돈도 벌고 싶고, 핑계 삼아 농장 밖으로 놀러 가고 싶기도 하니까 (아, 농장 밖 일정은 어째서 이다지도 좋은 걸까).

밀천이 탄로 나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걸 알면서도 승낙하는 데는 이게 나인데 어찌겠느냐는 무대책 심보도 있었고, 거창한 구호를 외치던 때보다 나와 내 주변의 평화를 챙기며 사는 요즘의 내가 훨씬 나아 보이는 것도 이유였다. 비록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질문에는 버벅거리겠지만.

2.

매일같이 엄마는 내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곤 하는데, 엄마의 그 말만큼은 바로 인정할 정도로 내 인생은 정신이 없다. 정신없는 건 무슨 일을 하냐는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분파인 나는 농사를 짓는다고 했다가, 아티스트라고도 하고, 농민운동가라고도 하고, 장사꾼이라고 했다가, 어떤 날은 여러 가지를 기획하는 사람이라고도 한다.



페미니즘 아티스트라고 하는 날도 있는데, 이건 자신감이 꽤 있는 날만 그렇다. ‘내 주제에 무슨 아티스트는’이라고 생각하는 날도 많지만, 들뜬 날에는 농촌 페미니즘 아티스트라고까지 소개하기도 한다. 대안교육한마당에서 난, 나를 농사짓는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했다. 모처럼 농장을 떠나 컨디션이 최상이었으니까. 하도 이랬다 저랬다 기분대로 소개하다 보니, 사람들은 내게 다시 묻는다. 그래서 너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몰라,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도 여러 일을 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한 가지 소속이나 알만한 직업으로 날 소개하지 못하는 게 전처럼 속상하진 않다. 내 일을 명확히 소개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진다거나 돈을 잘 벌 수 있는게 아니니, 괜찮다. 그저 눈을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쉼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스케줄이 좀 벅찰 뿐이다.

박푸른돌 이야기

박푸른들 이야기

마 이싱글라이프가_덕후/악마/가이비/가이비/...

농업을 공부하기 시작한 건 다시 생각해 보니 농사로 먹고사는 아빠와 이웃들이 덜 불행하길 바라는 마음 딱 그뿐이었다. 열 살이 되기 전부터 할아버지의 농사를 도왔던 우리 아빠. 그때부터 평생을 뜨거운 낮에도, 눈이나 비가 세찬 날도, 자신의 결혼식 날도, 세 딸들이 태어난 날에도 농사로 먹고 살아 왔지만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아빠. 농업을 시작한 이유는 대단한 가치보다는, 그저 아빠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아빠같이 몸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농업/농촌의 중심에 있길 바랐던 난,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농업 구조나 자신들이 직접 행복한 삶을 디자인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 오랫동안 농민 아빠가 이웃들과 농민운동을 하고, 어린이집 교사였던 엄마가 동료 교사나 학부모들과 농촌 보육운동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자신과 마을을 풍요롭게 하는 일들을 벌이는 걸 보면서, 자신과 주변의 상황을 마주하고 문제가 있다면 동료들과 함께 풀어 가는 일들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다고 믿어 온 터였다.



전공부 졸업 후 몇 년에 걸쳐 경험한 흥동과 농민운동 단체 일들은 그동안 보고 들은,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할 때 나오는 저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박푸른들 이야기

박지

농민

마을활동가 '과육 아카이브/가이브'...

아카이브

농민운동단체

농민운동단체 청년노동자모임 '농민이'

민중

홍동에서는 마을의 필요로 시작한 마을 사람들의 마을 기록, 기록으로 공부한 마을의 역사, 공부를 토대로 시작한 마을 안내 서비스, 마을의 오늘을 기록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소식지와 발표회 같은 일을 맡았을 때. 농민운동단체에서는 느리지만 작은 마을 단위에서의 논의가 시군 단위로 모아지고, 그것이 전국 단위로 모여 큰 목소리를 함께 내는 과정을 목격할 때가 특히 그랬다. 내가 목격하고 경험한 당사자들의 협력은 느리고 성과는 작았지만, 박학다식한 학자나 다른 누군가 대체할 수 없는 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당시 협력의 경험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한 단체를 그만둘 때 이곳에서도 배운 게 있었을 거라는 선배 말에 콧방귀를 뀌며 뒤도 안 돌아보고 퇴사한 내가 이제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스스로 놀라울 따름이다. 조직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일한다는 건 분명 쉬운일이 아니었지만, 합의와 협력의 과정을 배운 데서 이 시간들은 다른 것들과는 대체 불가였다.

물론 좋은 동료들을 만났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다. 회의를 할 때 감정은 좀 거르고 말하는 기술도, 사업 기획을 할 때 목적/목표를 정리해야한다는 것도, 문서 작성도, 업무 분담의 중요성도, 타인과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법도, 좋은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것도 모두 동료들이 감정파인 나를 다독이며 알려 준 것들이었으니까. 그들 덕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쉽게추진할 수 있는 실무력을 가진 지금의 내가 여기 있을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니야, 아무래도 지금의 나는 동료들이 키운 게 맞는 것 같다.



10년째 농업 판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건 이곳에 계속 있다 보니 애정이 깊어진 것도 있지만, 익숙하고 편했던 이유도 컸다. 낯선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다. 어떡할까. 이대로만 지낸다면 일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직급도 월급도 조금씩 오르겠지만 두려운 마음에 다른 세상을 만나지 못한다는 건 어쩐지 아쉬웠다. 익숙하고 편한 것들로만 일상을 채우는 건 웬지 세상을 덜 누리는 기분이라랄까.



10년 만에, 새삼스럽게 여러 질문이 내 주변을 맴도는 것도 고민 중 하나였다. 언젠가부터 내가 추구하는 농업이 막연하게 느껴졌다. 아스팔트에서 살려내라고 외치던 농업은 어떤 농업일까, 내가 지금까지 말한 좋은 농업이란 게 대체 어떤 것이었지, 앞으로 나는 어떤 농업(혹은 사회)을 추구해야할까. 속한 조직이나 기성세대가 오래전에 정의한 좋은 농업을 따라 외치고 일하길 10년, 너무 오랫동안 농업이나 농민을 무조건 옹호해 온 것은 아닐까.

생명 다양성을 말하지만 소수자를 무시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과연 그들을 동료라 말할 수 있을까.

4.

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2년을 놀았다. 일을 그만두면서부터는 톡톡이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 다양한 일을 벌였다. 그때그때 많은 일들을,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해 나갔다.



나와 내 주변의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좋은 동료를 만난 건 또 다른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으로 이어졌고, 작업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더 깊게 몰입할 수 있는 일들로 변해 갔다.

보지 자수 워크숍 ‘수놓아보지’가, 누드 드로잉 작업과 워크숍 ‘몸의 기억’이, 시골 페미니즘 스테인드글라스 작업 ‘반사’가, 농촌페미니즘캠프 ‘농촌청년여성캠프’가, 청년 농민 정책 토론회가, 농촌 페미니스트 작가들의 공동작업 ‘농촌게릴라걸즈’가 그랬다. 당사자로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과정, 조직에서 정해 준 동료가 아니라 마음 맞는 동료를 스스로 찾고 만나는 일은 축복이었다.

농촌페미니즘예술모임_한사

#퀴어축제참가

#서점_카페입점

#생활예술

#경계없는예술



보지워크숍

#몸_마음_자유로운대화

#대화를위한손작업



그리고 보면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를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그들 덕분이었다. 다른 역사와 흥터를 갖고 살아온 다른 존재가 만나, 서로를 존중하며 일하는 시간들 속에서 어느덧 난 나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니까 말이다.

그때부터였을까,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가 더 중요한 생각이 든 게. 의견이나 지시만 하는 사람, 성과를 자기만 가져가는 사람과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겠다 생각(하고는 나란 인간은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취직 같은 건 할 수 없겠다고 좌절)한 게. 이제는 같이 사유하고, 결정하고, 실무하고, 같이 빛날 동료들과 일하고 싶어진 건 그즈음이었다.

5.

퇴사 후 나는 자유롭게 욕망하며, 익숙한 곳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개인의 욕망을 하찮게 여긴 채, 공적인 사고를 강요했던 지난 10년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한 세계에 갇혀 산 지난 날 나에게 본때를 보여주듯, 다른 세계를 신나게 넘나들었다.

가장 먼저는 인류에게 필요한 기술을 내 멋대로 꼽고, 익혔다. 농사, 요리, 마사지. 마사지를 배워 친구들에게 해주고, 텃밭을 가꾸고, 밭에서 나온 것을 책임지고 요리해 먹었다. 나의 언어로 글을 쓰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일을 벌이기도 했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익숙한 곳, 편한 사람들을 벗어나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 피부미용사, 간호조무사, 호스피스병동, 압구정 성형외과. 농민 마사지사가 되겠다며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땀다가, 학원 강사 코드김에 넘어가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숨가쁘게 따기도 했다. 그러고는 무연고자/저소득층을 위한 호스피스병동에서 일하다가, 압구정 성형외과 수술방에서 까지 일했다. 평소 겁이 많던 나는 그 시간들 덕분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가벼운 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피 튀기는 수술을 하고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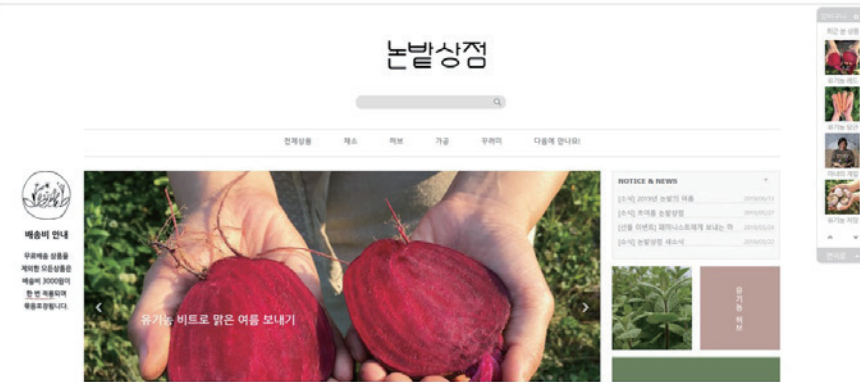




농발상점
#시골
#작은
#유기농상점

농사짓는 사람들이 돌보는 시골 작은 유기농 상점으로 공동체 농사 지은 것을 파는 곳입니다.
하루 중 오전은 농사를 짓고 오후는 농민과 소비자들 잇는 일을 하며, 꼬박꼬박 살아갑니다.

농발상점
#농사
#온라인쇼핑몰_장사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프로젝트



6.

다시 농업을 하기로 마음먹게 된 데에 대단한 이유는 없었다. 마침 아빠가 농사지는 농산물을 직거래로 팔아야 했고, 어쩌다 보니 농촌청년여성캠프 기획자로, 농촌 페미니스트로 예술 작업을 하게 되었으니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크게 고민하지 말자고, 눈에 보이는 일들이나 하자고 마음먹고 살다 보니, 해 본 게 농업이라고 어느새 다시 농업 판에 들어와 있었다. 뭐 아무렴 어때냐. 그저 난 안 돌아가는 머리를 애써 쓰면서 살기보단 몸으로 일해 먹고살길 바랄 뿐이었으니까, 뭐든 괜찮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내 직업이 그렇게도 궁금한가 보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묻고, 또 묻고. 그럴 때면 간단하게 장사꾼이라 말한다. 뭘 파느냐 물어보면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고 답한다. 실체가 그렇다. 논밭상점이란 이름을 짓고는 그곳에서 팔 수 있는 건 다 팔면서 사는 요즘 난 기획도 팔고,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작품, 농산물 가릴 거 없이 다 판다. 꼬박꼬박 세금계산서랑 현금영수증도 발행하려고 사업자를 낸 어엿한 자영업자이기도 하다.

대표되는 일은 농산물 직거래 서비스지만, 시골 작가들 작품 판매도 하고, 그때그때 시골에 필요한 일을 벌이기도 한다. 조직에 있을 때 미처 해 보지 못한 일들을 마구 벌이는 곳이기도 해서, 이곳이 때론 나의 욕망 집합소 같기도 하다.





영망진창 욕망대로 사는 삶이지만, 내 나름 일상의 규칙은 있다. 아무리 바빠도 덕 자랑 작덕이랑 매일 산책을 할 것, 수시로 예술을 할 것, 나와 내 주변에 가해지는 폭력에 적극 거부 표현을 하는 것. 이 세 가지 규칙은 나의 삶이 덜 위선적이게 만들어 주는 장치 같은 건데, 뭐, 이 장치가 언제까지 쓸모 있을지는 나도 모른다. 지금 쓸모 있는 게 나중에까지 쓸모 있으리란 법도 없고, 지금 쓸모없는 게 쓸모 있어질지도 모를 일이니까. 그저 난 그때그때 내 욕망대로 산다.



논밭상점
#농민_상점_구매자의 신뢰
#농사지어먹고살기
#잘살기



나에게 실패란

어떤 말을 써야 하지. 나에게 실패란(없는데. 성공의 어머니 같은 말을 쓸수도 없고.) 내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경험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살면서 어그러진 일들에 대해 대강 기억나는 것들은 대개 관계 같은 것들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서로 경계를 지키지 못 해 벌어지는 일들이었다. 경계를 지키지 못 한 게 실수라면 실수지만, 어긋난 관계를 관계 맺기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럼 난 실패해본 적 없는 사람인가. 생애 대단한 뜻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길게 보니 그렇다. 낙관적이라 그럴 수도 있다. 어떤 일이든 난 꼭 일을 할 때 목적/목표/세부계획을 세우고, 일이 모두 끝나면 그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는 언제나 치밀하게 한다. 성과와 보완사항,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정리한다. 대안 이행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둔다. 평가회의는 내가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과감히 접는다. 이게 실패에 대한 나의 자세일 수도 있겠다.



페미니스트에게
보내는
마녀의 계절



탈탈한 언니들 2030

발행일 · 2019.09.30

발행처 · 일생활균형연구소

기획 및 진행 · 김영주 · 안선영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1길 19, 401호

E-mail · hello@wlb-lab.org

Web · wlb-lab.org

편집디자인 · 이해원

표지디자인 · 이해원

후원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